당뇨! 당뇨 근본 원인 기능 개선제
프로지 골드
▪ 혈당 조절(공복혈당, HbA1c)
▪ 인슐린 분비 및 저항성 개선
PRO-Z USA (213)434-1170

기독일보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THURSDAY, June 9, 2022 Vol. 816

"故 이방걸 장로, 은혜의 증인 된 삶 보였다"

고 이방걸 장로 천국 환송예배가 지난 28일 주안에교회(담임 최혁 목사)에서 거행됐다.

천국 환송예배에 함께한 주안에교회 성도들은 고인의 신실하고 충성됐던 삶을 추모하며, 고인의 믿음의 길을 따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향해 달려갈 것을 다짐했다.

최혁 목사의 집례로 거행된 천국환송예배는 최혁 목사가 "아름다운 여행"(창세기 50:24)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최 목사는 "고 이방걸 장로님이 벌써 그립다. 고인은 예배의 자리를 사모했고 하나님을 지독하게 사랑하셨다. 어려움 가운데 인내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마음으로 헌신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았다"며 "고인의 삶은 주님과 동행하신 삶이었고, 돌아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자신의 모든 삶을 비워 하나님과 영혼을 사랑하셨다"고 회고했다.

故 이방걸 장로 천국 환송예배에서 설교하는 최혁 목사 ⓒ기독일보

그는 "험한 폭풍우와 같은 고난의 삶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의 동반자가 되어주셨듯,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여행"이라며 "우리가 돌아가야 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소망하며, 고인의 삶을 따라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여정을 경주하자"고 권면했다.

한편 1955년 출생해 1975년 미국으로 이민 온 고 이방걸 장로는 미군에서 복무했으며 회계사로 일하며 교회 일에 앞장서 왔다. 사랑의빛선교교회와 주안에교회에서 39년 동안 봉사했으며, 2003년 장로임직을 받아 2013년부터는 주안에교회 시무장로로 섬겼다.

고 이방걸 장로는 지난 20일 오후 2시 소천 받았으며, 유가족으로는 아내 이혜령 권사와 슬하에 2남(매튜 리, 다니엘 리)을 뒀다.

김동욱 기자

美 아칸소 35개 교회, 동성애 논쟁으로 UMC 탈퇴 고려

미국 연합감리교회(UMC)에 소속된 아칸소 35개 교회가 동성애 논쟁을 이유로 교단에서 탈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UMC 아칸소 연회는 최근 공식 연례회의를 시작하면서 634개 회원 교회 중 35개 교회가 탈퇴 절차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회 대변인은 CP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가까운 장래 얼마나 더 많은 교회가 이러한 절차를 거치게 될지 불확실하다"라고 덧붙였다.

CP에 따르면 대변인은 게리 뮬러 아칸소 감독이 교단에 남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교회를 위한 선택지를 설명하는 영상을 시청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이 영상에는 UMC 장정이 동성결합 축복금지와 동성애자 안수금지를 포함해 성소수자(LGBT) 문제에 대한 전통적인 입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 포함됐다.

(아칸소 감독이) 제안한 3가지 선택지는 교단에 무기한 남거나, 2024년 총회 결과를 기다리거나, 현재 기준에 따라 탈퇴하는 것이 포함된다. 여기에는 교인투표, 연회 지도부와의 소통, 교단에 대한 특정 재정 지불이 포함된다.

뮬러 감독은 "이기는 싸움도 아니며 종합격투기 승부도 아니다. 지금은 슬픔과 분별의 시간"이라며 "우리는 타인이 가진 최선의 의도를 존중해야 한다"라고 했다.

지난 2019년 2월 24일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린 UMC 특별총회 모습. ⓒUMC

CP에 따르면, 지난 5월 1일 교단 내 성소수자(LGBT)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논쟁에 대한 응답으로 보수 성향의 교단인 세계감리교회(GMC)가 출범했다. 그 이후, 특히 미국 UMC 교회들은 초기 GMC에 합류하기 위해 교단에서 탈퇴할 계획을 발표했다.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UMC 그룹인 웨슬리안언약협회(Wesleyan Covenant Association)는 최근 플로리다에 있는 107개 UMC 교회가 GMC에 가입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WCA 플로리다 지부는 "107개 플로리다 감리교회가 UMC 플로리다연회 탈퇴 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라며 "이 그룹의 교회에는 앵글로, 아프리카계 미국인, 라틴계, 한국 및 기타 소수민족 신앙공동체와 함께 크고 작은 교회가 포함된다. 이 교회들은 2022년 5월 1일 출범한 새로운 교단인 GMC와 협력한다"라고 밝혔다.

이미경 기자

미국 정착의 지름길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임상우를 만나십시요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50만불 간접 투자이민 상담환영
•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 • 학생비자
•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 • 가족초청 이민업무
• 종교비자 및 이민업무 • 체류기간 연장
• 지상사 주재원 비자 및 이민업무
www.davidlimlaw.com 213.251.5554
3435 Wilshire Blvd., Suite 2550, L A, CA 90010 / Fax 213.251.8451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프란트
이 동 희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다정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부동산법 / 상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 (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기간 그 실력을 인정받아 온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분야의 법적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뱅크럽시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대면/전화상담 예약 213.820.3704

41차 미주 남침례회 한인교회 총회
주제 : 모든 것의 중심되신 예수
최병락 목사
강남중앙침례교회 담임목사
세미한교회 설립목사
Vance Pitman
Send Network 총재
전 Hope Church 담임목사
Jeff Iorg
Gateway 신학교 총장
전 서북미주총회 총재
■ 기간 : 2022년 6월 13일~15일
■ 장소 : 남가주새누리교회
975 S Berendo St, Los Angeles, CA 90006
■ 총회 행사 문의
준비위원장 김영하 목사 (714) 280-5684
준비위원총무 민승배 목사 (310) 938-0824
* 저녁시간은 지역사회 모든 분들께 OPEN됩니다.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 40차 정기총회
대 사명의 열정을 회복하라!

“포스트 코로나 목회 · 선교 위기... ‘기도’로 극복하자”

킴넷2022 국제선교지도자 포럼 시애틀형제교회서 개최

시애틀형제교회에서 개최된 킴넷 2022 국제 선교 지도자 포럼 첫날 집회에서 기도의 회복을 당부하는 한기홍 목사 ⓒ기독일보

세계선교동역네트웍(KIM-NET상임대표 최일식 목사)가 주최하는 2022 국제 선교 지도자 포럼이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시애틀형제교회(담임 권준 목사)에서 사흘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첫날 집회 강사로 나선 한기홍 목사(남가주 은혜한인교회)는 펜데믹 이후 교회와 선교지에서 회복되어야 할 가장 시급한 사안을 ‘기도’로 꼽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역의 중요성을 소개했다.

그는 “30년 동안 목회와 선교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주님이 해주셔야 한다’는 것”이라며 “선교의 전략과 정보, 지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할 수 있고, 기도할 때 선교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 목사는 “기도는 불가능한 환경 가운데서도 사역을 가능케 하고, 성령의 능력은 상황과 환경을 넘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한다”며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지 못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답답한 사역을 할 수 밖에 없다. 교회와 선교를 일으키시는 성령님께서는 펜데믹 가운데서도 역사하신다”고 전했다.

그는 또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과 정보를 능력으로 착각할 때 목회와 선교가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며 “목회자와 선교사들은 바쁘고 힘들수록 엎드려 기도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하고, 그럴 때 불가능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맛보게 된다”고 조언했다.

한편 “지역교회를 넘어 확장된 선교”(Missions, Amplified Beyond the Local Church)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포럼은 세계 각국의 선교 지도자들이 참석해 전세계 선교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국제적 선교 협력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김동욱 기자

제15기 두란노 미주 목회자 아버지 학교, 펜데믹 이후 첫 대면 개설

목회자 아버지학교 제15기 수료자들과 가족, 봉사자들 ⓒ기독일보

제15기 LA 목회자 아버지 학교가 지난 15일(주일)부터 22일(주일)까지 4일 동안 LA 온누리교회(담임 이정엽 목사)에서 개최됐다.

남가주 지역 목회자 12명이 수료한 이번 목회자 아버지 학교는 박세헌 목사, 국윤권 목사, 이정엽 목사, 권준 목사가 강사로 나서 ▲아버지의 영향력 ▲아버지의 남성 ▲아버지의 영성 ▲아버지의 사명 등을 주제로 강의했다.

이번 목회자 아버지 학교를 진행한 성요셉 목사는 “성경적 아버지의 역할을 통해 가정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주신 영적 지도자임을 깨닫고 가정의 연합과 하나됨을 배우는 매우 귀중한 시간이 됐다”고 평가했다.

목회자 아버지학교 15기 동기회장으로는 서보천 목사, 부회장에 장현석 목사, 총무에 송재봉 목사가 선출 됐다.

한편 미주 목회자 아버지 학교는 2003년 1기가 개설됐으며, 지난 20년 동안 424명의 목회자(목사, 선교사, 전도사)들이 목회자 아버지학교를 수료했다.

김동욱 기자

미드웨스트대학교 학위수여식 갖고 36명 졸업생 배출

2022 미드웨스트대학교 학위수여식 ⓒ기독일보

콜롬비아 컬리지와 MOU 체결 개교 36주년 기념 음악회 개최

올해로 개교 36주년을 맞이한 미드웨스트대학교(Midwest University 총장 제임스 송 박사)는 지난 19일, 세인트루이스 본교 정진경박사 세계선교기념관에서 2022년 학위수여식을 갖고 학사, 석사, 박사 등 36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날 학위 수여식에서는 콜롬비아 컬리지(Columbia College)와 미드웨스트 대학교 간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시간도 가졌다. 학위수여식에는 전 미주리주 하원의원들이 참석해 격려사와 축사를 전하기도 했다.

한편 미드웨스트대학교는 개교 36주년을 맞아 한국 교원대학교 음악교육과 교수인 소프라노 고미현의 독창회와 2022 미드웨스트 콘서트 등 다채로운 행사를 펼쳤다.

미드웨스트대학교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 636)327-4645 또는 이메일 usa@midwest.edu, 웹사이트 www.midwest.edu로 하면 된다.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프로그램 구성:

1년차 설교 [Preaching]
2년차 영성 형성 [Spiritual Formation]
3년차 리더십 [Leadership]

교수진
클린턴 아놀드 교수 Dr. Clint E. Arnold
도널드 스누키안 교수 Dr. Don Sunukjian
존 코 교수 Dr. John Coe
에디 변 교수 Dr. Eddie Byun

초청 강사진
줄리어스 김 Julius Kim
김한요 목사 Bryan Kim
강준민 목사 Choon-Min Kang
권혁빈 목사 Hyuk Been Kwon
권준 목사 James Kwon
이규현 목사 Gyu Hyun Lee

- 신입생 모집 -

올해로 개교 114주년을 맞이한 바이올라 대학교 소속 탈봇신학교에서 2023년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을 새롭게 런칭합니다.

원서접수 2022년 11월 1일 마감

지원자격
- 정규 인가 받은 신학대학원에서 취득한 석사 학위 (신학석사ThM, 목회학석사MDiv, 문학석사MA)
- 졸업 평점평균 3.0 이상 (4.0 기준)
- 목회경력 : 3년 이상의 목회 경험이 있는 자 (부목사 지원 가능)

수업기간
- 1년차 : 2023년 5월 29일 - 6월 9일 (2주)
- 2년차 : 2024년 5월 27일 - 6월 7일 (2주)
- 3년차 : 2025년 6월 2일 - 6월 13일 (2주)

수업장소 미국 캘리포니아 탈봇신학교 캠퍼스

입학문의: * 한국어 상담 가능
전화: +1 (562) 903 4705 (미국)
웹사이트: https://www.biola.edu/doctor-of-ministry-korean-track
이메일: talbot.korean.dmin@biola.edu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남가주 은혜한인교회 김광신 원로 목사 소천

남가주 은혜한인교회 김광신 원로 목사가 지난 25일 오후 6시 20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향년 87세.

고 김광신 목사는 1935년 1월 2일 부산에서 출생해 부산중학교와 마산 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문리대 영문과를 졸업했다. 42세라는 비교적 늦은 나이에 소명을 받아 44세에 탈봇 신학교에 입학해 복음 사역자의 길에 들어섰다.

3년 후인 1982년, 탈봇 신학교를 졸업한 그는 세 가정과 함께 은혜한인교회를 개척했으며, 평생 전세계를 누비며 복음 전파에 앞장섰다.

고 김광신 목사는 '땅끝까지 복음 전파'라는 선교 비전 아래 남가주 은혜한인교회의 부흥을 주도했으며, 단일교회로서는 가장 많은 전 세계 6천여 교회를 개척한 '선교 지향적' 교회로 이끌었다.

캘리포니아 풀러튼에 위치한 남가주 은혜한인교회는 2대 한기홍 목사 취임 이후에도 성도수 5천 여명의 대형교회로 꾸준히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고인은 생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했다. 그동안 세계 방방곡곡에서 일궈온 놀라운 사역 앞에서도 모든 것이 주님께서 행하신 역사이며, 주님께서 일하시는 교회에서 그저 함께 했을 뿐이라는 겸손의 고백으로 일관했다.

고인은 지난 22일 작성한 그의 마지막 사랑의편지에서 "우리 인간은 예수님을 만날 때만이 영원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길을 확실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며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들이 빛 되신 예수님께로 나아오는데 있는 것"이라고 마지막까지 자신의 선교 비전을 놓지 않았다.

남가주 은혜한인교회 故 김광신 원로 목사

한기홍 목사는 "고 김광신 목사님께서 1992년 은혜한인교회를 은퇴하시면서 장로님들에게 '나를 선교사로 보내달라'고 간곡하게 설득하시던 장면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김 목사님은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역의 목표를 붙들고 사셨고,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한가지 소원 때문에 세계선교에 당신의 모든 것을 드렸던 분"이라고 회고했다.

한기홍 목사는 "고 김광신 목사님께서는 목회를 하시면서도 선교사처럼 사셨기에 은혜한인교회가 오늘날까지 선교적 교회로 나아갈 수 있었다"면서 "고인의 숭고한 헌신의 삶과 고귀한 뜻을 기억하며 은혜한인교회는 앞으로도 세계 선교를 위해 달려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욱 기자

제2기 전성진 찬송교실 은혜 가운데 마쳐

로뎀 장로교회에서 진행된 제2기 전성진 찬송교실

제2기 전성진 찬송교실이 은혜 가운데 마쳤다. 12명의 학생들이 16주 동안 참여한 찬송 교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소리를 찾는 방법을 비롯해 고음과 저음 발성법, 성량 증대법, 정확한 가사 전달방법 등 은혜로운 찬송을 위한 다양한 수업이 진행됐다.

찬송 교실을 마친 수료자들은 "찬송을 부를 줄 몰라 교회 가기 싫었고, 악보도 볼 줄 몰랐지만 찬송 교실을 통해 찬송도 부르고 은혜도 받게 됐다"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찬송 교실 등록과 기타 문의는 847)846-9988 전성진 목사에게 할 수 있다.

국제복음주의협회(IEA) 제65차 목사 안수식 거행

국제복음주의협회(IEA) 2022년 목사안수식

국제복음주의협회(International Evangelical Association 이하 IEA) 목사후보자 교육과 제65차 목사안수식이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세인트루이스에 소재한 IEA본부에서 실시됐다.

이날 목사 안수를 받은 7명은 현재 미국과 한국, 우간다, 인도, 코스보에서 선교 사역과 교회에서 전임사역을 하는 이들로서 IEA를 통하여 목사고시를 치르고 특별교육을 거쳐 목사 안수를 받았다.

IEA 에서는 교파를 초월하여 전문분야에서 사역하는 남성와 여성을 위해 목사안수의 길을 열어두고 있다.

IEA는 세계지도자 양성을 통한 세계선교를 위해 지난 1983년도에 제임스 송 박사가 설립했고 1986년도에는 미드웨스트 대학교(Midwest University)와 2001년에 GGU를 설립해 세계 지도자를 양성하고 있다.

라구나힐스교회 제10회 장학기금모금 골프대회 개최

라구나힐스교회 제10회 장학기금모금 골프대회

라구나힐스교회(담임 림학춘 목사) 장학위원회(위원장 최병철 장로)는 지난 16일, 오렌지카운티 도브캐년골프클럽에서 제10회 장학기금모금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라구나힐스교회는 골프대회 참가자들의 특별 기부금과 20여명의 장학위원들의 연례 기부금으로 장학기금을 마련하고 10명의 장학생에게 각 2천 달러씩, 총 2만 달러를 전달할 예정이다.

2022년 장학생 선발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라구나힐스교회 홈페이지(http://www.lagunachurch.com)에서 응모요령과 지원서를 확인후 6월 24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장학금 전달은 8월 14일 광복기념주일에 진행 될 예정이다.

한편 올해로 25주년을 맞는 라구나힐스교회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총 83명의 장학생에게 15만7천 달러의 장학금을 전달한바 있다.

훼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n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Western Ave. LA, CA 90006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의 복음통일선교도서

박상원 목사 책의 편저자
책의 추천자들:
오대원목사(예수전도단), 주선애교수(장신대 명예교수) 이용희교수(애스더대표), 송정명목사(북송반대 공동대표), 권준목사(쥬빌리미주대표), 신청민박사(통일은 대박이다), 유관지목사(통일포럼대표), 김인식목사(KCC공동대표)
* 열의 책은 아래 연락처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20/권당 + $5 우송료
지금까지 3만 5천부가 판매된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한/영)과 속편 '빛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북한 간부 출신의 자전적 스토리와 지하성도들의 순교증언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기적같은 여정이고, 우리에겐 복음통일의 완수라는 분명한 메시지의 울림이다.
* 체크오더명: GBMW 모든 기부금은 세금공제의 혜택을 받는 세금영수증을 발부해 드립니다.
기드온 둠직선교 GIDEON BROTHERS MISSION WORLD
GBMW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425)775-7477 gbmwusa@gideonbrothers.org www.gideonbrothers.org

미주 기독일보 후원
한국 혜민병원
VIP종합검진 초특가 이벤트
"한국 방문 한번으로 보고싶은 가족과 친구도 만나고 건강도 잡으세요."

검진내용
♣ CT 촬영(뇌, 폐 선택)
♣ 종양표지자 암검사
간암, 대장암, 전립선암, 췌장암
♣ 특수 초음파 검사
질, 갑상선, 전립선, 유방(27세 이하)
하복부(간장, 비장, 췌장, 담낭, 신장)
♣ 수면 대장내시경
♣ 수면 위내시경
♣ 방사선 촬영(유방, 흉부)
♣ 골밀도
♣ 70개의 기본검사
검진비용
~~$950~~ $350 (환율변동)
$100불 할인예약증
$250 검사당일 납부
쿠폰발행일로부터 5년 유효
(양도 양수가능)
새 생각, 새 의술
혜민병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85 지하철 2호선 구의역 하차 4번 출구방향 으로 직진 신호등 건너 150m 도보
자세한 내용은 213·341·5123로 문의해 주세요.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255

"고 김광신 목사님을 기리다"

이 상 훈 목사
주비전선교회 대표

지난 시애틀 킴넷 포럼 중에 존경하는 김 목사님의 소천 소식이 전해졌다. 모든 참여자가 일시에 허전하고 아쉬운 석별을 보내는 숙연한 시간이 한동안 이어졌다.

미주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나 선교적 목회를 하는 우리 목회자들에게 김 목사님은 선교적 맨토요 존경하는 스승과도 같았다. 필자의 지인 중엔 김 목사님의 곁에서 함께 선교지를 가고 선교적 가르침을 받은 후배 목사들 그리고 선교사들이 많이 있다. 목사님과 직접적으로 친분을 갖고 있지 않은 필자조차도 마음에 큰 공허감이 들고 애도의 마음이 이렇게 큰데 그분과 친분이 있는 분들은 참으로 큰 애도의 마음이 있을 것이다.

필자는 30여 년 전 전도사 시절을 기억한다. 필자는 한 서점에서 파타임 일을 하고 있었다. 어느 날 여러 명의 성도들이 온종일 끊임없이 서점을 드나들며 많은 선물을 사 갔다. 며칠간 계속되었는데 그들은 은혜한인교회 교인들로 러시아로 단기선교를 가기 위한 준비를 한 것이었다. 필자는 많은 교인이 선교지를 가는구나 하며 감탄하였는데 그 후 들려진 소식은 대한항공 비행기 두 대를 대여하여 러시아 선교지를 간 것이었다. 한 교회의 성도들 수백 명이 비행기를 전세 내어 러시아라는 공산권 나라로 선교를 간다는 것이 여간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그 후 필자는 은혜한인교회의 수요예배나 특별집회에서 자주 김 목사님의 설교를 찾아 듣게 되었다. 주저함 없이 항상 강력하고 확신에 찬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선교 지향적 메시지를 필자는 과거 그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했다. 그 말씀을 듣고 돌아와 몇 날 동안을 들었던 말씀을 곱씹으며 은혜로 보내는 기간이 많았다. 그렇게 그분은 필자에게까지 선교의 영향력을 많이 끼치셨다. 은혜 한인교회는 날이 갈수록 선교적 교회로 성장하였고, 370명의 선교사 파송, 1천 개 이상의 선교지 교회 개척, 그리고 한기홍 목사로의 성공적 담임 교체, 김 목사님은 은퇴한 후 교회의 대외 선교 프로젝트를 소화하시며 교회의 선교를 동역하였고, 그렇게 온 힘을 다하시며 87세까지 선교과제를 완수하셨다.

필자는 십여 년 전 단 한 번 김 목사님과의 만남을 기억한다. 은퇴 후에 병이 드셔서 초췌하셨던 때, 어느 더운 여름날 필자는 몇 친구 목사들과 냉면집을 갔었다. 김 목사님이 따님과 함께 오셔서 냉면을 드시고 계셨다. 티셔츠에 운동모자를 눌러 쓰고 계셨지만, 목사님을 잘 알고 있었던 한 친구가 알아보고 목사님께 우리 모두를 소개하고 인사시켰다. 우리의 대접 제안을 사양하시고 목사님이 오히려 우리의 식사비까지 다 지불하셨던 기억이 난다. 그 이후엔 은혜 한인교회 예배 자리에서 혹은 교회에서 하는 연합 행사 때마다 맨 앞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목사님을 먼 뒷자리에서 바라보는 것만으로 만족하였다.

이제 목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에서 하셨던 모든 사명을 마지막까지 감당하시다가 주님께로 가셨다. 어느 날 요한 계시록에서 보여 준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이 다모여 천상의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일까? 목사님은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감사를 받으실까?

필자는 존경했던 목사님의 소천하심을 보며 재헌신의 기도를 드린다. "사랑하는 주님! 귀감이 되시는 김 목사님을 미주에 보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분이 보여주신 선교적 자세와 사역을 돌아오며 가셨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태광목사의 인문학 강의 —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인문학으로 읽는 예수님 생애 ⑬ "예수님을 재판한 산헤드린 연구"

강 태 광 목사
월드쉐어 USA

예수님은 유대인 최고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정죄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려간 예수는 산헤드린의 세 당파의 대표자들인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과 대질합니다. 유대 사회의 원로원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산헤드린은 로마 총독의 통제하에 유대인 내정을 관장하는 최고 기관이었습니다.

'산헤드린'이라는 표현이 신약성경에 22회 등장합니다. 복음서에 5회 등장하고, 사도행전에 14회 등장합니다. 그리고 서신서들에서 세 번 산헤드린이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산헤드린이라는 이름이 아닌 '공회(Council)'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을 소개하면서도 누가는 산헤드린 이라는 표현 없이 '공회 의원'이라(눅 23:50)고만 언급합니다.

역사의 격동기을 거치면서 유대인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기관들을 두었습니다. 우선 회당입니다. 유대인은 성인 남성 10명 이상이 있으면 회당(Synagogue)을 보유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많은 회당이 있었고 예수님이 방문하신 지역마다 회당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방문했던 도시들에서 가장 먼저 회당을 찾았던 것은 잘 알려진 일입니다.

회당과 더불어 산헤드린이 있었습니다. 산헤드린은 유대인 성인 남자 120명이 거주하는 곳에 설치해야 했습니다. 지방의 소도시일 경우 산헤드린의 정원은 71명이 아닌 23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산헤드린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첨예한 갈등을 막기 위해 인원이 홀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 사회에 다수의 산헤드린이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로마제국은 많은 점령지를 쉽고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점령지의 상황에 맞게 지방자치정부와 지방문화와 종교를 허용하였습니다. 이것이 로마제국의 문화 정책이었습니다. 로마는 유대교를 인정했고, 초대교회의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로 로마 정부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로마 정부의 문화 정책에 편승해서 유지되고 운영된 자치기구가 바로 유대인 최고 기구인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산헤드린의 기원은 모세가 광야에서 자신을 대신할 지도자 70명을 임명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물론 광야의 지도자들과 산헤드린의 기능이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임명한 70인의 지도자들이 성막 근처에 자리 잡았습니다. 성전 건축 후에는 산헤드린 공회가 성전 경내에서 모였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경내에서 모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종교 관련 사항도 관장하게 되었고, 많은 종교 재판을 했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 사회에서 행정권, 입법권 그리고 사법권을 행사했었습니다. 특히, 종교적 사안까지 관장함으로 산헤드린은 어마어마한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국민을 다스리기 위해 최소한 매질할 권리와 투옥할 권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종교범은 자체 판결로 투석형(사형) 집행이 가능했고, 정치범에게는 로마 정부의 인정하에 십자가형(사형) 집행도 가능했습니다. 스데반은 산헤드린의 결정에 따라 성소 모독이라는 종교법 범법자로 투석형으로 사형을 당했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형은 불법적 요소가 많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신성모독 죄로 판결을 내리지만(마26:65; 막14:64), 청중들을 두려워해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기며 정치범 으로 둔갑시킨 것을 증언합니다. 예수님 십자가형은 반란음모자에 대한 처형이었습니다. 신성모독죄로 시작된 재판이 정치범 재판으로 끝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재판 과정이 불법임을 복음서 저자들은 고발합니다.

산헤드린의 다양한 불법은 헤롯 왕가에 의해 이뤄졌습니다. 요세푸스는 '헤롯이 왕이 되기 전에 그가 행한 갈릴리 사람들에 대한 불법적 폭력과 처형으로 산헤드린이 그를 고발하고 심문하려 했을 때, 헤롯은 오히려 무력으로 공회원들을 죽이고 자기의 사람들로 공회를 채웠다'라고 전합니다. 그 후에 헤롯 가문의 왕들이 산헤드린을 유린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로 구성되었지만, 의장은 대제사장이 맡았습니다. 산헤드린의 의장을 '나시(nasi)'라고 불렀는데, 로마제국은 산헤드린을 통제하기 위해 산헤드린 의장인 나시를 임명권을 행사했습니다. 유대지방 총독의 주요한 임무가 산헤드린 통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시절의 산헤드린 의장은 로마 총독 코포니우스에 의해 임명된 대제사장 안나스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재판 당시의 산헤드린 의장은 가야바였습니다. 그는 안나스의 사위로 대제사장으로 취임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신 산헤드린 법정은 가야바의 법정이었지만 영향력은 안나스가 더 컸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온갖 죄악과 불법이 가득한 가야바의 법정이 의로우신 예수님을 정죄한 것은 인류 죄악의 아이러니입니다.

기독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 행 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a@gmail.com
주소 : 3008 Wilshire Blvd. #200, Los Angeles, CA 90010

후원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2022년도 가을학기
신입생 및 편입생 모집 중

Grace Mission University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 견실한 인격
– 강한 군사
– 세계 선교

찾아오시는 길
W Commonwealth Ave
S Brookhurst Rd
W Valencia Dr

Grace Mission University

축. 한인 신학교 최초로 교육학 철학박사과정 TRACS 인가

ATS정회원 ABHE정회원 TRACS정회원 CHEA Council for Higher Education Accreditation

탁월한 복음주의 신학의 산실인 그레이스미션대학교에 오셔서 세계선교의 꿈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학위과정	교육학 철학박사 (PhD in Educational Studies) 교차문화학 철학박사 (PhD in ICS) 선교학 박사 (D.Miss) 목회학 석사 (M.Div) 기독교 교육학 석사 (MA CE) 교차문화(선교학)석사 (MA ICS) 기독교 상담학 석사 (MACC) 신학사 (BA) 기독교 상담학 학사 (BACC)
특 혜	한인신학교 최대규모의 도서관과 e-Library 저렴한 교육비, 다양한 학교 장학금 수여 LA 확장강의실 한국어, 영어로 수강 가능 스페인어,중국어,인니어 동시통역 수강가능 유학생 I-20 발급 연방정부 및 캘리포니아 학비보조 온라인 통신으로 전과정 제공 HD 시스템을 통한 고화질 온라인 강의 Hybrid 강의 (대면미팅 및 Zoom, Distance)

이벤트 1. 교육학 철학박사과정-장학금
TRACS 학위 인가 기념으로 2022년 가을학기 교육학 철학박사과정 등록 신청시 20% 장학금을추가 지급함
박사원 연락처: 714-365-1123, doctoral@gm.edu

이벤트 2. Early Bird 장학금
온라인 입학 원서 접수 및 입학 절차를 6월 30일 전에 완료하면 $300불의 Early Bird 장학금 지급

이벤트 3. 화상입학설명회
6월 17일 오후 4시 Zoom
7월 15일 오후 4시 Zoom
Zoom 컨퍼런스ID:648-961-5938 pw: 2020
*학교소개, 학위과정, 입학절차, 장학금소개, 통신수업안내
*참석하시는 모든 분에게 입학금 면제 혜택 드림
*학교홈페이지 GM.EDU에서 LiveChat으로 입학 상담 가능

Tel:714-525-0088(대표) Ext 101 입학문의 email:admissions@gm.edu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www.gm.edu

월드미션대학교 '찬양과 예배' 전공 과정 신설

미국에서 시작된 월드미션대학교가 한국에 '찬양과 예배' 전공 과정을 신설해 2022년도 가을학기 학생 모집을 준비하고 있다.

찬양과 예배 전공 과정의 특징으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사립고등교육국(BPPE)의 정식 인가를 받았고, 기독교대학연합회, 신학대학원협의회의 정회원으로 졸업 후 세계 모든 대학원에 진학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 세계의 현대 예배와 찬양을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단체들인 칼빈 연구소, 워십리더미디어, 타미 워커 미니스트리, 로버트 웨버 대학원 등과 학문적, 실제적인 예배의 다양하고 심도 깊은 콘텐츠를 공유하고 있다.

찬양과 예배 과정 교수진으로는 "내 이름 아시죠" "나는 주만 높이리" "내 마음을 가득채운" 등으로 유명한 타미 워커를 비롯해서 국내에서는 전 예수전도단 화요모임 예배인도자 윤주형 교수, 아이자야씩스티원 예배인도자 조성민 교수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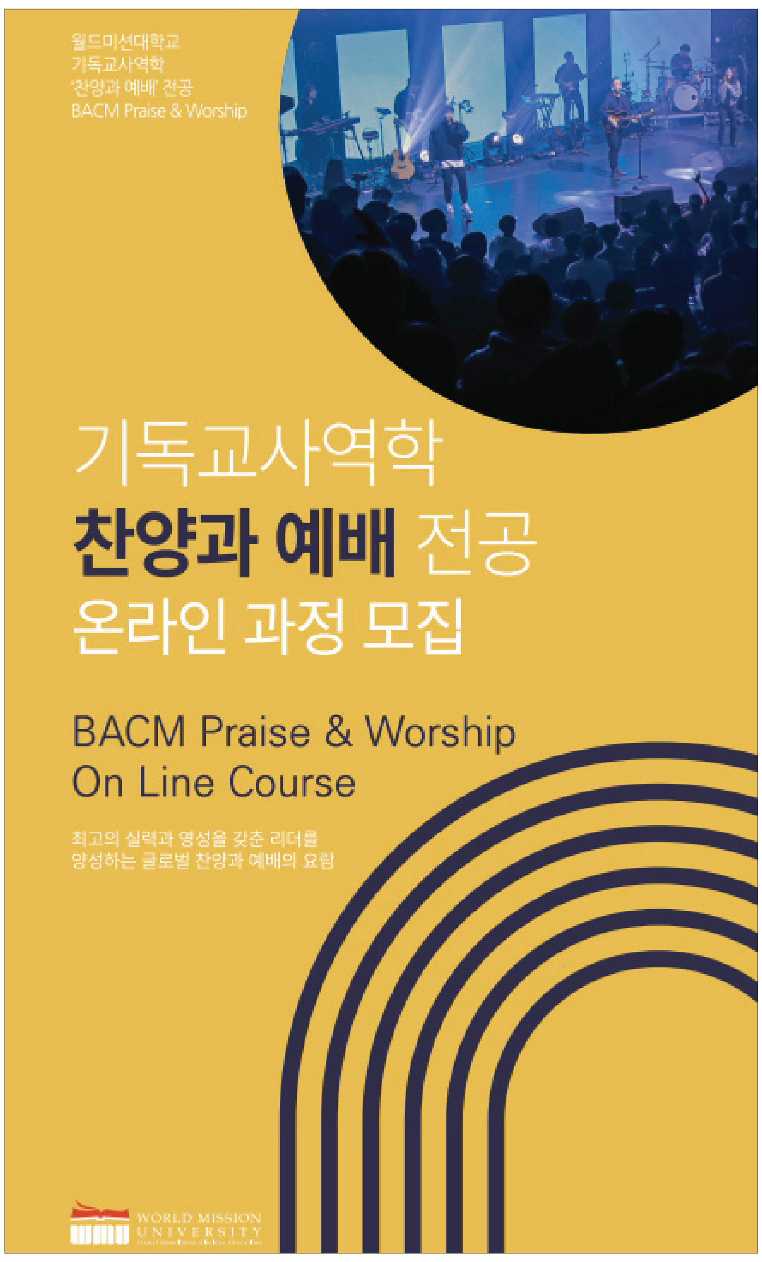
월드미션대학교는 과정 신설에 관하여 "지금 교회는 위기의 시대라고 합니다. 점점 영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지금의 시대는 교회 예배의 영적 회복과 다음 세대를 위한 깊은 영성을 겸비한 실력 있는 예배와 찬양의 참된 리더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개설된 월드미션대학교 기독교사역학(BACM) '찬양과 예배'(Praise & Worship) 전공 과정은 이와 같은 갈급함과 이 시대를 향한 새로운 우리 모두의 소명으로 탄생되었습니다"라고 했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와 찬양의 진정한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이 시대에 한국 교회를 섬길 뿐만 아니라 아시아를 비롯한 디아스포라 교회 공동체, 더 나아가 세계적인 글로벌 예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잘 준비되었습니다"라고 했다.

또한 "'찬양과 예배' 전공 과정은 현대 예배와 찬양의 성경적 이론과 예배 신학을 선도하는 이 시대 최고의 교수진이 함께하며, 오랫동안 탁월하게 깊이 있는 찬양 사역을 통해 한국교회와 예배자를 섬겨온 아이자야씩스티원의 실제적인 콘텐츠가 함께해 풍성한 영적 시너지를 만들어낼 것입니다"라고 했다.

그리고, "이제 '찬양과 예배' 전공 과정은 한국 교회를 섬길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영적 야성을 가지고 사역하는 현장마다 영향력을 일으키고 새로워지는 미스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실력과 진정한 겸손, 그리고 영적 능력을 갖추고 교회 공동체를 섬길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영적 랜드 마크를 꿈꾸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월드미션대학교는 이번 전공 설립의 목적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의 현대 예배 신학과 예배 역사, 성경적 예배 본질의 학업을 바탕으로 현재 지역교회와 예배 공동체에 직접적인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예배 모델, 예배 영성, 예배 리더십 등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기독교사역학 '찬양과 예배' 전공 과정을 지향한다. 또한 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에 영향력 있는 이론과 실제를 갖춘 균형 있는 예배의 지도자, 예배 사역자 및 예배 찬양 인도자를 배출하기 위한 기존의 예배 교육기관과는 차별화된 영적으로 깊고 넓은 '찬양과 예배' 전공 과정을 추구합니다"라고 했다.



기독교 사역학 찬양과 예배 전공 모집 포스터 ⓒ월드미션대학교 제공

아래는 이번 전공 과정에 대해 학교에서 제공한 Q&A이다.

-월드미션대학교(World Mission University)는 어떤 학교인가요?

"월드미션대학교(WMU)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도심지에 위치한 복음주의 기독교 대학입니다. 35년여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지금 약 600여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온라인과 온캠퍼스 과정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2025년 1000명의 재학생을 목표로 정규과정으로 공식 인정하고 있는 신학대학원협의회(ATS)의 정회원으로 졸업 이후 본교 찬양과 예배 석사과정(MAWS)은 물론 미국 내 모든 기독교 대학원 석,박사 과정으로 진학 가능합니다."

-기독교사역학과 '찬양과 예배' 전공과정(Praise & Worship course)은 어떤 과정인가요?

"미국 신학교에서는 20여 년 전부터 현대적인 '찬양과 예배' 전문 교육을 가르쳐오고 있는데, 한국과 미국을 통틀어 한국어로 개설되는 최초의 온라인 과정으로 설립되어 실제 예배 사역을 할 수 있는 전문 사역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 전공과정은 100% 온라인과정으로 언제 어디서나 공부가 가능하며, 수업은 8학기 4년 과정으로 한학기당 16학점씩 126학점을 이수하게 되면 기독교사역학 '찬양과 예배'(BACM Praise & Worship)' 전공 학사 학위가 수여됩니다."

-입학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대학 정규 학사과정(BA)이므로 정규 고등학교 또는 검정고시를 졸업하거나 졸업에 준하는 자격이 있어야합니다. 또한 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하거나 교육학, 음악을 전공한 분들에게는 성경에 관한 유사 과목을 면제받게 되며 확인하시기 전문학사나 휴학 등으로 인한 입학생들도 과목에 따라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학비나 제반 비용은 어떤가요?

"졸업 이수 학점이 126학점이며 학점 당 $ 270입니다. 이번에 입학하시는 모든 신입생들에게는 특별히 사역 장학금 20%의 혜택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입학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기독교사역학과 '찬양과 예배' 전공과정(Worship & Praise course)의 교수진은 어떤가요?

"현시대 최고의 예배 인도자인 '내 이름 아시죠'의 타미 워커(Tommy Walker)를 비롯해, 현대 예배학을 이끄는 대표적인 석학인 레스트 루스(Lester Ruth) 교수, 현대 예배 찬양을 다룬 '아트 오브 워십'와 '에센셜 워십'의 저자 그렉 쉬어(Greg Scheer), 예배와 찬양 베스트셀러 강사인 탐 크라우터(Tom Kraeuter) 교수 등이 가르칩니다. 또한 '글로벌워십미니스트리'의 설립자이자 찬양과 예배 석사과정 디렉터인 가진수 교수를 비롯해 '주의 인자하심이' '내 영이 주를'의 작곡자이자 LA의 아이엠처치의 담임목사인 정종원 교수, 예수 전도단 화요모임을 이끌었던 예배 인도자인 높은뜻푸른교회의 윤주형 교수, LA 베데스다 교수와 베델교회 예배 인도자였던 탬파 새빛교회 담임목사인 김섭리 교수, 아이자야씩스티원 예배 인도자이자 프로듀서인 조성민 교수, 예수 전도단 화요모임의 대표 간사이자 예배 인도자인 염민규 교수, 기쁨이 있는 교회의 예배 인도자이자 조이풀 워십 R45의 리더 레베카 황 교수 등이 함께 합니다. 이외에도 예배와 찬양 부문의 최고 권위자 교수들이 계속 함께 할 예정입니다."

가을 학기 정규 모집은 원서 접수 마감은 8월 15일 경이고, 정확한 일자는 학교 웹 사이트(www.wmu.edu)의 학사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접수 장소는 본 대학교 접수처 또는 이메일(admissions@wmu.edu)로 가능하다. 입학문의는 가진수 교수(010-4665-0982, jsoogah@wmu.edu)나 아이자야씩스티원 노소영 간사(010-2668-2058)에게 하면 된다. 조성호 기자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2022년 가을학기
게이트웨이 신학대학원의
한영이중언어과정(KEB)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 등록마감일 : 유학생 6월 1일, 미국거주자 7월 15일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GE)
■ 주 소 :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

한영이중언어과정(KEB,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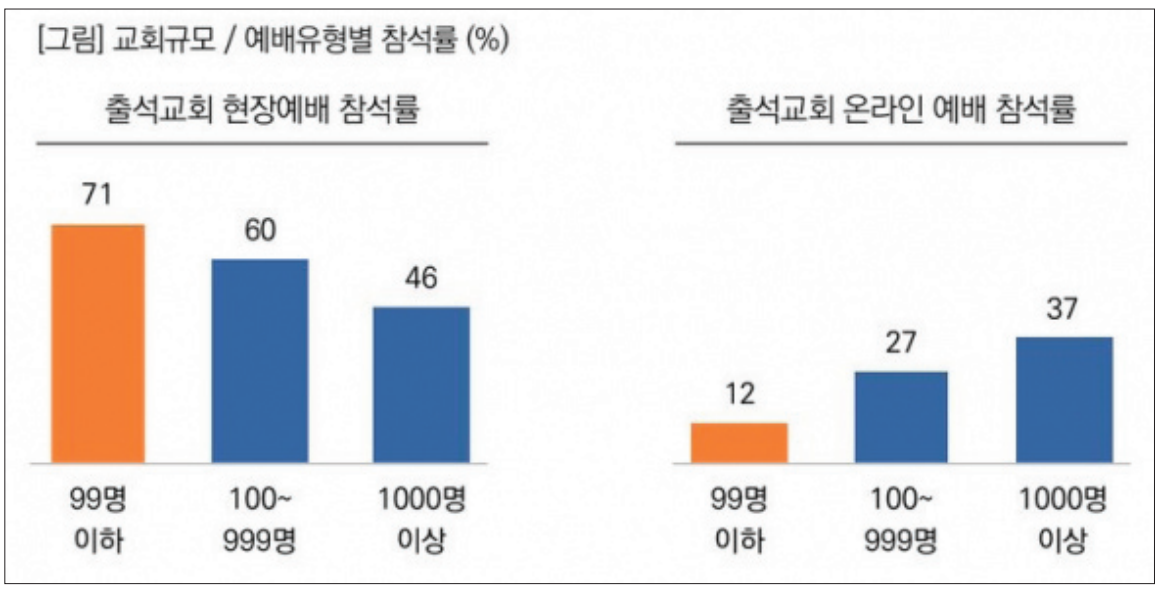
-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는 이중언어 과정입니다.
- 세계 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회가 후원하며 게이트웨이(구, 골든게이트)의 탁월한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이민교회와 더 나아가 세계를 섬기는 역량있는 기독교 지도자 양성 과정입니다.
- 원격 수업도 지원합니다.
- 북미주 최고의 학력 인증 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ATS)와 WASC Senior College and University Commission(WASCU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한국교회 현장예배 참석률, 교회 규모 클수록 저조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종교시설 인원제한이 해제된 가운데, 교회 규모가 클수록 현장예배 참석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장 통합총회(총회장 류영모 목사)와 기아대책, 목회데이터연구소가 전국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1,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5일부터 25일까지 11일 간 조사한 결과다. 목회데이터연구소는 31일 주간 리포트 '넘버즈 제146호'에서 이를 포함한 주요 결과들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교회 규모별 주일 현장예배 참석률은 △'99명 이하 교회'는 71% △'100~999명 교회'는 60%였던 반면 △'1000명 이상 교회'는 46%까지 떨어져 절반을 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목회데이터연구소

반대로 출석교회 온라인예배 참석률은 △'99명 이하 교회' 12% △'100~999명 교회' 27% △'1000명 이상 교회' 37%로 교회 규모가 클수록 높아졌다.

또 교회 규모가 클수록 성도들의 신앙이 약화되는 현상도 두드러졌다. '신앙이 약해진 것 같다'는 응답은 △'99명 이하 교회'에서 28% △'100~999명 교회'에선 39% △'1000명 이상 교회'에선 46%로 나타났다.

연령별 주일 현장예배 참석률을 보면, 20대가 63%로 가장 높았고, 이어 60대 이상 62%, 50대 60%, 40대 51%, 30대 49% 순이었다.

이에 대해 목회데이터연구소는 "연령별 현장예배 참석률은 30대와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60% 안팎의 참석률을 보이는데, 30대는 49%, 40대는 51%로 타 연령층 대비 10%포인트 정도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며 "이들은 온라인 예배로 빠지거나 아예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특히 "30대 층의 경우 예배 드리지 않은 비율이 18%로 가장 높은데, 앞으로 3040세대를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미래 한국교회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지희 기자

한기총, 한교총과 통합안 가결했지만 여정 험난할 듯

한기총 정상화추진위, 7일 기자회견서 "김현성 임시대표 배임" 주장

한기총 정상화추진위원회가 7일 오전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앞줄 가운데가 위원장인 이은재 목사. 뒷줄 맨 왼쪽이 구주와 변호사, 맨 오른쪽이 고영일 변호사 ⓒ김진영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지난 2일 임시총회를 열고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류영모 목사, 한교총)과의 통합안을 가결한 가운데, 한기총 김현성 임시대표회장이 '배임'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기총 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은재 목사, 이하 정상화위)는 7일 오전 서울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 임시대표회장이 본래 '한기총 정상화'를 위해 새 대표회장 선출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상화위원장 이은재 목사는 "김현성 임시대표회장의 임무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임시총회를 열어서 대표회장을 선임하는 것"이라며 "그것이 법원이 그를 파송한 목적"이라고 했다. 그런데 그가 한기총에 온지 약 1년 9개월이 되도록 그와 같은 총회를 소집하지 않고 있다는 것.

정상화위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구주와 변호사도 "임시대표회장 김현성은 목사도 아니면서 임시직에 올랐으면, 속히 대표회장을 선출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한 고영일 변호사(법무법인 추양가을햇살 대표변호사)에 따르면, 이런 이유에서 김 임시대표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한다.

또 정상화위 측은 한기총 회원 3분의 1의 동의를 얻어 새 대표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법원에 청구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김 임시대표회장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기총이 그간 새 대표회장 선출보다 한교총과의 기관 통합안을 먼저 논의한 것은 한기총 임원회 등 결의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즉, 본인은 그와 같은 결정에 그저 따랐을 뿐이라는 것.

실제 통합할 경우 법인 정리 어떻게 되나?

한편, 한기총은 지난 2일 임시총회에서 한교총과의 '기관 통합의 건'을 논의, 찬성 70표, 반대 64표, 무효 1표로 해당 안건을 가결했다. 다만 양 기관이 최종 통합하려면 한교총도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기총과 한교총이 통합할 경우, 법인 정리에 있어 실제 가능한 경우의 수는 세 가지로 ①두 기관 법인을 모두 해산하고 별도의 새 법인 설립 ②한기총 법인 해산 후 한교총 법인으로의 통합 ③한교총 법인 해산 후 한기총 법인으로의 통합이다.

김 임시대표회장은 지난 임시총회 당시 '한기총이 한교총과 통합할 경우 이것이 한기총 해산이 아니냐'는 일각의 의문에 대해 "원래 분열되기 전 한기총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해산과는 반대 방향의 연합사업"이라고 했었다.

그는 이와 관련해 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법인 문제는) 한교총과 계속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면서도 "한기총의 역사와 명칭은 계속 가져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교총 관계자는 아직 한교총 내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 논의가 되고 있지 않다고만 말했다.

한기총과 한교총의 통합이 최종 결정될 경우 법인 정리 문제에 대해 교계 한 관계자는 "두 기관이 이미 법인인 상황에서 그것을 모두 해산하고 별도의 새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 두 법인 중 어느 한 곳으로 통합하는 것인데, 김 임시대표회장의 말로 미루어봤을 때, 역사가 깊은 한기총 법인을 사용하게 될 것 같다"고 했다.

반대로 "어느 한 법인으로 통합하는 것은 법인을 해산하는 쪽 입장에선 흡수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거부감이 있을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두 법인을 모두 해산하고 별도의 법인을 설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도 있다.

김진영 기자

NOW OFFERING

IB PYP(K~5TH) • MYP(6TH~10TH)
DP(11TH~12TH)

100% UC대학이상 합격 시켜온 퀄리티 그대로..
14년간 온라인 수업도 함께 해온 학교를 믿으세요!

NCA사립학교

Now Enrolling

"이래서~믿을 수 있구나!"

•졸업생 100% UC계열 대학에 합격
•12학년 평균 SAT 1,390점의 우수한 성적
•매일의 학업성취 데이터를 확보, 학생별 맞춤교육
•11:1 학생 교사 비율로 효율적 온라인 교육
•최대 1/3 수준의 저렴한 학비부담 (타사립학교 대비)
•기독교 바탕의 실력, 인성을 겸비한 인재교육
•LA 유일, 세계적 프로그램 IB 실행 (International Baccalaureate) 및 졸업증 수여자격 보유*

*IB 프로그램이란?
전 세계 약 4,000개 학교가 참여하는 국제인증 학위제도 입니다.

3119 W. 6th Street,
LA, CA 90020

213.487.5437

NCA사립초중고등학교
New Covenant Academy

Est.1999

e-nca.org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daily

LA, 동부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샘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수, 금)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245-6616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차세대예배 오전 9:30)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오전 6:20(토)
수요중보기도모임(수) 오후 7:30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깨우고,이민2세를책임지며,이민가정을치료하며,선교명령을순종하는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lden 코너)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영성예배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 월~토
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 833-9090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1:00
Heart of David 금요예배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24325 Crenshaw Blvd, #241, Torrance, CA 90505
T. (310) 905-2228 / newchurchdtla.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com

주일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엘리야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가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에 위치)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상예배)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수/금요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
영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유초등부/유치부 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내심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40
3부예배 오전 11:40
EM(Holy Wave) 오전 10: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오전 6:30 (토)
우영화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35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45
수요말씀강해 오후7:30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수요예배: 저녁 7시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라디오 방송설교
라디오서울 AM 1560
주일 아침 6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323) 897-5751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1:00
라티노 오후 6:30
GCEM 오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금),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소,친,초 정신의 흐름,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 오전10:00
유초등부 오전11:00
중고등부 오전11:00
E.M(대,청) 오후 1: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30 (토)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t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수요예배 오후 7:30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금요철야기도회(마지막주)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글렌데일, LA북부 지역

주일 1부 오전 9:00
주일 2부 오전 12:30
EM 오전 11:15
사랑부 오전 8:45
JCCC Academy
오전 10:15, 오후 12:4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0:30
EM예배 오후 12:30
유년부 오전 10:30
중고등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美 텍사스주 총격 사건 희생 아동, 죽기 전 친구들 전도

엘리 가르시아. ⓒ고펀드미

지난주 텍사스 롭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격으로 목숨을 잃은 19명의 어린이 중 한 명이 죽기 전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으로 알려져 감동을 주고 있다.

엘리 가르시아(9)는 10살 생일을 1주일 앞두고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매일 밤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복음을 나누곤 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가르시아는 죽기 전 자신의 틱톡에 "얘들아, 난 단지 너희들에게 한 소식을 전하고 싶어.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 그러므로 우리가 죽으면 그분과 함께 그곳에 있게 될 거야. 내 방에는 그분의 사진이 3장 걸려 있어"라고 전도하는 영상을 올렸다.

이 같은 소식은 그녀의 아버지인 스티븐 가르시아(Steven Garcia)가 자신의 페이스북(Facebook)에 15초 길이의 이 영상을 게재하며 알려지게 됐다.

그는 지난 1월에는 "딸이 기도하는 것을 좋아한다"며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며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당시 그는 "엘리 지(Eilee Gee)가 우리의 전능자와 이야기하는 도중 포착됐다. 나는 널 사랑해. 그리고 네가 기도하는 방식을 사랑해"라고 남겼다.

가르시아 가족을 위한 모금 페이지인 '고펀드미'(GoFundMe)에 따르면, 현재 목표액 5만 달러 중 12만 8,078달러가 모금됐다.

엘리의 어머니는 "6월 4일에 태어난 딸은 이번 주 10살이 될 예정이었다. 엘리아나는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영혼을 지닌 소녀였다. 딸은 큰 미소와 포옹으로 모든 사람의 세상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언제나 잊지 못할 우리 딸을 영원히 기억하겠다. 가족이 받은 모든 사랑과 기도에 가족과 친척, 친구들, 지역사회 및 전 세계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했다.

한편 이 사건 용의자인 18세 라틴계 남성은 지난 14일 롭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 들어가 학생 19명과 교사 2명을 총기로 살해했다.

캘리포니아의 하베스트교회 설립자인 그렉 로리 목사는 사건 이후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게재한 칼럼에서 "지금은 애도할 때이다. 핵심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다. 그분은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했다.

그는 "만약 여러분이 이 아이들 중 한 명을 잃은 유가족이고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당신의 상실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세주로 믿는 신앙을 가졌다면, 자녀를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과거의 일부일 뿐 아니라 미래의 일부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강혜진 기자

미국 · 중남미 美 복음주의 목회자 51%만이 '성경적 세계관' 소유

ⓒUnsplash/CarolynV

미국 복음주의교회 목회자의 51%만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애리조나 크리스천대학 문화연구센터(CRC)는 지난 24일(이하 현지시각) '아메리칸 월드뷰 인벤토리 2022'(American Worldview Inventory 2022)를 기반으로 한 새 보고서를 발표했다.

'아메리카 월드뷰 인벤토리'는 미성인의 세계관을 평가하는 설문조사로, 세계관이 적용된 8개 범주 내에서 목적과 소명, 가족과 삶의 가치, 하나님, 창조와 역사, 신앙의 실천, 죄, 구원,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의 성격과 본성, 생활 방식, 행동 및 관계 그리고 성경, 진리와 도덕 등 신념과 행동을 측정하는 54개 관련 질문을 던진다.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약 1,000명의 기독교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응답한 기독교 목회자 중 37%만이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무소속이나 독립교회는 복음주의 교회 지도자들보다 성경적 세계관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게 나왔으며, 그 중 51%가 일상 생활에서 성경적 신학을 따른다고 답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데 가장 열정적인 것으로 알려진 침례교회 목회자들 중 48%만이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남침례회 목회자들의 경우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이들은 전체의 78%였다.

은사주의나 오순절교회 목회자들의 경우, 37%가 성경적 세계관을 지니고 있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오순절에 동의하는 주류 개신교 교회 목회자(32%)와 성결신학에 동조하는 목회자(28%)들보다 높았다.

전통적인 흑인 개신교 교회의 목회자들과 가톨릭 사제들의 경우,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통적 흑인교회를 이끄는 목사의 9%, 가톨릭 사제의 6%가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있었다.

애리조나 크리스천대학 문화연구센터의 조지 바나(George Barna) 박사는 성명을 통해 "교회 가족들에게 붙은 오래된 이름표는 과거만큼 유용하지 않다"며 "가장 좋은 예가 '복음주의'라는 용어로, 이는 전통적으로 우리 삶에 있어서 성경을 '하나님의 신뢰할 수 있고, 적절한 말씀'으로 가르치는 교회를 의미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복음주의 목회자 중 겨우 절반이 '복음주의' 교회로 간주될 수 있는 교회에 다니고 있으며, 그 숫자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美 오클라호마주 "공립학교 화장실, 생물학적 性에 따라 이용"

ⓒpixabay

미국 오클라호마주 케빈 스티트(Kevin Stitt) 주지사가 공립학교 학생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이 아닌 생물학적 성에 해당하는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한 법안에 서명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스티트 주지사는 지난 25일 상원 법안 615에 서명했다.

지난 19일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에서 38대 7로 통과된 이 법안은 같은 날 하원에서 69대 14로 승인됐고, 스티트 주지사의 서명 직후 발효됐다.

민주당원들은 거의 만장일치로 법안에 반대했다. 상원에서는 민주당원 1명이 찬성했고, 하원에서는 아무도 지지하지 않았다.

이 법안은 "오클라호마주에서 유아원부터 12학년까지 학생들을 지원하는 공립학교 및 자율형 공립학교(차터스쿨)는 남성 전용이나 여성 전용 다인용 화장실 또는 탈의실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성을 개인의 출생증명서에 기록된 유전 및 생물학에 기초한 남성 또는 여성으로 정의한다.

법안에는 학생들이 생물학적 성별로 지정된 화장실과 탈의실을 사용해도록 한 요구사항에 대해 "학교 측은 이를 원치 않는 모든 개인에게 합리적 편의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학교가 제공할 수 있는 합리적 편의 시설은 '1인용 화장실 또는 탈의실'로서, 생물학적 성별과 일치하는 화장실 사용을 원하지 않는 트랜스젠더 학생은 1인용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다.

교육구가 이러한 조항을 어길 경우, 다음 회계 연도에 주에서 제공받는 지원금이 5% 줄어든다.

한편 트랜스젠더로 알려진 학생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맞는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책은 미 전역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버지니아주 라우던카운티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치마를 입은 남학생이 여자화장실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두 사람은 과거 교제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8월 교육위원회가 이 정책을 최종 승인한 지 두 달 만에 성폭행 소식이 알려진 것이다.

그러나 이후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에서 공개한 이메일에 따르면, 교육구 지도부는 실제로 성폭행이 발생한 6월 이미 해당 사건을 인지했으나 정책 추진을 위해 이를 의도적으로 은폐한 정황이 드러났고, 이는 곧 대규모 시위로 번졌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트랜스젠더로 식별된 남성이 여성 전용 스파에 들어가 직원들과 만나 대화하는 영상이 확산돼 논란이 됐다. 직원들은 성적 취향을 이유로 그가 여성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했고, 그는 여성 시설에 들어가 자신의 성기를 노출했다.

이러한 논란 속에 오클라호마를 비롯한 테네시, 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학생들이 생물학적 성별에 해당하는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강혜진 기자

美 남침례회, 성학대 혐의 지도자 명단 공개

미국 남침례회(SBC)가 교단 내 지도자들의 성학대 혐의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회개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데 이어, 해당 혐의를 받고 있는 지도자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앞서 SBC 실행위원회 윌리 맥로린(Willie McLaurin)과 롤랜드 슬레이드(Rolland Slade) 의장은 이 같은 명단 공개를 예고한 바 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해당 명단은 학대자의 이름 전체와 학대가 일어난 연도와 장소(주)를 포함하고 있으며, 관련 혐의와 교단에 관한 뉴스가 링크돼 있다. 명단에 나온 모든 이들이 남침례회에 속한 것은 아니다.

또 희생자들과 아직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편집도 이뤄졌다.

맥로린과 슬레이드는 "편집된 항목에 대한 더 철저한 조사와 분석이 있을 것이고, 일부 편집된 항목이 향후 완전히 공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발표를 연기하고 조사하는 것보다 일단 명단을 공개하고 편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느꼈다"고 덧붙였다.

앞서 가이드포스트 솔루션(Guidepost Solution)은 SBC 지도자들이 학대의 희생자들을 위협하고, 교회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조치들의 채택을 거부해 온 사실을 보여 주는 288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수많은 SBC 실행위원회 지도자들이 교단 내 학대 의혹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다른 사항들을 고려하

미국 남침례회 본부. ⓒ남침례회 홈페이지

지 않은 채 단순히 책임 회피에 급급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 "이를 위해 학대의 생존자들과 희생자들은 무시를 당했고, 신뢰를 얻지 못했으며, '교회의 자치권과 관련된 정책 때문에 교단은 어떤 행동도 취할 수 없다'는 입장에 부딪혀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교단이 큰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교계 지도자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댈러스제일침례교회를 이끌고 있는 로버트 제프리스(Robert Jeffress) 목사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 보고서는 정말 끔찍하다"면서도 "이것이 교회들을 위한 경종의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했다.

남침례신학대학교 알버트 몰러 주니어(Albert Mohler Jr.) 총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팟캐스트에 "그 보고서는 파괴적이고, 마음이 아프며, 정말 화가 난다"며 "남침례회는 그 보고서를 하나님의 분노를 드러낼 심판의 일부분이자 자비로 여겨야 한다"고 말했다.

강혜진 기자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EM예배 (1부)오전 9:00
EM예배 (2부)오전 11:0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밸리채플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영어예배 오후 1:30
금요영성집회 저녁 7:45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T, (818)363-5887
OC채플
주일예배 오후1:00
EM 오후 1:30
수요영성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2351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종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사우스베이 지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유치부 오전 11:00
유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신태섭 담임목사
가디나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 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 (310)217-9191 www.gpclove.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EM 1부 9:30/ 2부 11:00
중/고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오전 5:15 (화-금)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0:45
EM성인예배 오후 1: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KM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려짐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주일1부 오전 7:45
주일2부 오전 9:45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오렌지카운티 지역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 오후 7: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EC)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1부예배(EM) 주일 9:00am
2부예배(KM) 주일11:00am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금요찬양예배 8:00pm
(매월 두번째 금)
새벽예배 화~금 5:30am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 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7:00(수)
중보기도 오전 9:00(목)
제자성서 오전 9:30(금)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림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일본어 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11:15
한어부 오후 1:00
KM대학청년부 오후 2:30
박신웅 담당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매월 마지막 금요일)
청년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뤄가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rcoc.com

1부예배 오전 07:30
2부예배 오전 09:20
3부예배 오후 11:30
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토요일 오전 06:0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 훈 담임목사
함께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IS, 기독교인 20명 처형 영상 공개… "끝까지 복수할 것"

ⓒSITE Intelligence Group

극단주의 수니파 이슬람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가 기독교인 남성 20명을 처형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해당 영상은 최근 IS의 자체 선전매체 아마크(Amaq) 뉴스 채널에 게시됐다.

사형 집행자들은 '이슬람국가 서아프리카지부'(ISWAP), 포로들은 나이지리아 북동부의 보르노주 출신으로 알려졌다.

IS가 공개한 영상에는 3개 집단으로 나뉜 남성들이 복면을 쓴 4명의 총에 맞아 살해되는 장면이 담겨 있다.

두 번째 집단이 처형된 후, 테러범 중 한 명은 "우리는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형제들의 복수를 할 때까지 쉬지 않을 것"라고 했다.

IS는 이번 처형에 대해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 대한 경고"라며 "지하디스트들은 세상 끝날까지 그들과 전쟁을 벌일 것"이라고 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오픈도어 대변인 조 뉴하우스는 "이 영상들은 기독교인들 사이에 두려움을 심어 주기 위한 것"이라며 "이 남성들의 가족이 겪어야 하는 공포와 비통함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고 했다.

그녀는 그러나 "ISWAP는 이 영상을 통해 두려움을 심어 주려 하지만, 전 세계 기독교인들은 처형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킨 이 사람들의 증언을 경외해야 한다"고 했다.

오픈도어 "신앙 지킨 이들의 증언 경외해야"

ISWAP는 기독교인 10대 여학생 레아 샤리부를 포로로 잡고 있는 단체다. 5년 전 요베주 다부치에 소재한 학교에서 납치된 그녀는 이슬람 개종을 거부하며 계속 구금된 상태다.

뉴하우스는 "나이지리아에서 폭력적인 지하디스트 단체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 심각한 우려가 되고 있다"며 "전체 지역사회가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뿌리뽑히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러한 단체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드는 여러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 정부와 국제사회의 단호한 행동을 촉구한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英 스코틀랜드장로교, 동성혼 집례 허용법안 통과

영국 스코틀랜드장로회 총회가 사상 처음으로 동성혼 집례를 허용하기로 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에든버러에서 진행 중인 스코틀랜드장로회 총회에서 총대들은 찬성 274표, 반대 136표로 동성혼 집례 허용법안 초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결혼예배 인정법(1977년) 제2조항은 "스코틀랜드교회에서 결혼은 안수받은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최소 2명의 증인이 출석한 가운데 종교 의식으로 거행한다. 양측은 서로가 살아 있는 동안 남편과 아내로 삼기로 함께 서약하고, 목사는 양측을 남편과 아내로 선언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법안 초안이 통과됨에 따라 해당 법안에서 '남편'과 '아내'라는 단어가 삭제됐다.

또 "스코틀랜드교회에서 혼인의 주례는 안수받은 목사나 집사가 하나님 앞에서 최소한 2명의 유능한 증인이 출석한 가운데 서로가 살아 있는 동안 결혼 안에서 함께하기로 서약하고, 목사나 집사는 두 사람의 혼인을 선언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2022년 총회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29개의 노회가 이 법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름을 밝히지 않은 2개 노회를 포함해 총 12개 노회는 "이는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며, 스코틀랜드교회 내에서 더 많은 분열을 일으킬 것"이라며 반대했다.

승인된 법안에 따라, 목회자들은 동성결혼 주례자 등록을 하고 3년마다 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동성결혼 예식을 위한 새로운 전례가 마련되고, 법적자문위원회는 변경된 법안에 따른 지침을 준비하게 된다.

이 법안은 또 어떤 목사도 동성결혼 주례를 강요받거나 그들의 의사에 반해 결혼 준비에 관여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동성결혼을 주례하기 원하는 목회자들은 회중과 본당이 속한 교구 또는 기타 그룹의 평화와 일치, 사목적 필요를 고려해야 한다.

이 법안 지지자들은 "기존 법안에 따른 현상 유지는 교회에서 결혼할 수 없는 LGBT 기독교인들에게 상처를 주었으며, 사람들이 환영받지 못하게 만들었다"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Unsplash

동성결혼을 한 스콧 레니 목사는 "남편의 사랑과 지지가 없었다면, 교회의 목사가 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이 법안에 반대하는 다수의 견해도 있었다. 로스크로머티, 알네스의 로스킨 교구 필 건 목사는 "이 법안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했다.

그는 "스코틀랜드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더 이상 우리의 권위가 아니며,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무시하는 것이 좋다', '이미 우리를 위선자로 여기는 사회의 눈에 좋게 보이도록 성경을 다시 쓰는 것은 괜찮다'며 분명하게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스코틀랜드교회가 다른 이들을 사랑하라는 부름을 받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사회와 세상의 방식에 순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꼬집었다.

일부 총대들은 교회에서 동결혼을 집례를 거부하는 목사들에 대해 민사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글래스고에 있는 샌디포드헨더슨메모리얼교회 벤 쏘프(Ben Thorp) 목사는 "여전히 이에 대해 여론의 판단은 매우 강력하며, 동성결혼식을 하지 않기로 선택한 교회가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스코틀랜드교회 총회 검찰관인 로라 던롭은 "충분한 보호 조치가 법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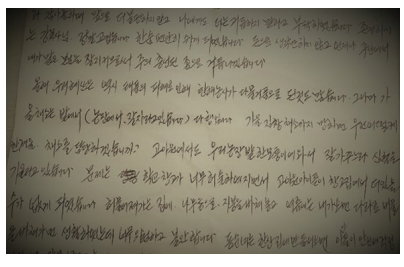
김유진 기자

헤어 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 독일 슈바츠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지하숙소복원과 북녘동족(어린이)들에게 사랑과 복음을 전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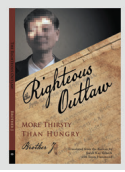
지난 여름 태풍으로 붕괴된 숙소 (10명의 고아들 거주)
복원과 동족들과 어린이들이 추운 겨울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주신 감사절과
성탄절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힘이 될 것이고 복음통일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 "1919유관순" 교회/단체관람(안내)

3.1운동 100주년과 유관순 서거100주년을
기념하고, 초대 교회와 성도들의
하나님사랑과 나라사랑을 감동은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커다란 울림과 사명을 준다.
주중 혹은 주말과 주일에 교회단체관람가능,
관람료는 관람후 자발적인 헌금 혹은
$300 관람비 로 합니다.
내년 3월 유관순 서거 100주년을 맞아, 유네스코에
역사인물로 등재가 됩니다 (관람신청은 아래연락처).

복음통일을 위한 동족선교구입(안내)



"고난의 대행군 때,
그 땅에 굶주림이 극에 달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목마름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들은 숱한 압제와 통제속에서도 성경을 알게되면서, 이 민족을 향한 주님의 섭리를 깨달아 복음통일의 귀한 병기들로 세워져가고 있음이 이 책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_박상원 목사(편저자) _'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한/영), 빛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
($20/권당+우송료$5을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면 우송해드립니다)

기드온동족선교회는 매달 북녘의 동족어린이들에게 영양빵 3,000~5,000개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달 참여하여 도울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모아둔 동전들이 있다면 성탄절 전에 보내주세요. (참여방법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기드온 동족선교 GIDEON BROTHERS MISSION WORLD GBMW
16825 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el. 425.775.7477 gbmwusa@gideonbrothers.org I www.gideonbrothers.org
돕는 방법: Pay to: G.B.M.W(체크오더명)로 기입해서 아래의 주소로 보내주시면, 연말세금공제영수증을 보내드립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빌립보서 3:1-14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영적 체질 인생은 영적 가치관이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의 내용과 같이 교회의 목자들은 항상 그 양떼들의 영적소망이 가장 안전한 가운데 영광스러운 결실을 이루어가게 하려고 애타는 심정으로 그 핵심적인 중요한 교훈을 자주 되풀이해서 일러주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라"고 했는데 이것은 유대주의자들을 의미합니다. 즉 유대주의자들의 엉터리 주장을 경계하고 상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는 말은 악한 행동을 일삼는 자들을 경계하며 어울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손할례당은 유대인들이 행하는 할례에 대한 논쟁으로 할례 자체의 의식만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이후 남자가 태어나서 여드레가 되면 할례를 행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대상으로서의 표시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표시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오랜 세월을 되풀이해서 많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예언하시고 다짐해 오신 메시야라는 그리스도를 주실 대상으로서의 표시가 할례였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시고 또 그 죄가 엄청난 저주와 지옥의 형벌을 가져온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대안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그 이름을 믿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가 할례를 받았던 받지 않았던간에 전혀 차별 없이 구원시켜주십니다. 그래서 손할례당을 멀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시고 성령으로 가르치게 하시는 진리의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택하신 사람이라면 반드시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믿어지는 감동체험도 주십니다. 그렇게 믿어질 때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 회개는 성령이 시키시는 회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가 될 수 있습니다. 회개함으로 죄를 용서받게 되면 하나님은 보혜사라는 성령을 주십니다. 그 성령을 받게 되면 생각과 말과 행동, 사는 목적과 방법이 새롭게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영적인 소망을 목적으로 새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가치를 최고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소원하며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3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곧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간적인 배경으로는 누구 못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5-6에서 그는" 내가 팔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 그 모든 것들이 무가치한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훗날 하늘나라를 위하여 득이 되지못하고 오히려 해가되는 것들로 화장실의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회개할 때 자기를 완전히 뒤집어 쏟아서 내던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자기 심령에 채워지는 이 한 가지 은혜 충만한 신령한 소망의 기쁨을 목적으로 새롭게 거듭난 인생으로 새 출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바울과 같이 이런 변화가 없다면 교회를 헛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의(義)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값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예함을 알려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던지 죽은 자 가운데서 생명의 부활에 이르기를 소원한다 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음박질하여 좇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달음박질하는 과정에서 이 세상이 원수마귀 소굴이기 때문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더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면 힘쓸수록 핍박은 더 심해지게 되어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껏 행한 일들은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좇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지 그렇게 믿을 생각 없으면 교회 올 필요 없습니다. 결국 헛다니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한국교회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적 같은 일들을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여러 사람들이 믿음의 반열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하늘나라 가기까지의 구원의 서정이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밖에 있던 사람이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의 관계에 진입하는 것에서부터 그것이 완성되는 전 과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궁극적인 실현에 이르게 하는 과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적인 순서라기보다 논리적인 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순서는 미리 정하심(예정), 부르심(소명), 거듭남(중생), 회심(회개와 믿음), 칭의(롬3:24), 하나님의 자녀(양자), 성화(롬6:4-6, 갈5:16-18), 성도의 견인(히3:14), 영화 순입니다. 이것은 모든 구원을 이루는 요소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시작되었고, 완성될 것이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참고 견디는 과정도 필요하고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하고 영적가치기준이 예수님과 일치해서 영적인 성과를 목적으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조건들을 채워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4시30분/동부오후7시30분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국 신문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기독일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2022 미주기독 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 세계 최고의 교수진
•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 실용적인 사역 대비
• 오프라인 수업
• 미국 비자 (I-20) 발급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 562-903-4705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인터넷 홈페이지 www.mbts.edu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eway., Kansas City, MO 64118
Tel.(816)414-3754 Email: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213)388-1000 Fax:(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714)527-0691(0692) Fax:(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BTS.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AZUSA PACIFIC UNIVERSIT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 T.(626)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요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is.org
학교주소 | 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 aurahelio@gmail.com
전화 | 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www.itsla.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 MATS 선교학 석사 ▪ M.Div 목회학석사
▪ Th.M 신학석사 ▪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626) 653 9547 EXT.# 112/admin.kor@itsla.edu

강준민 칼럼

사랑의 세 가지 비밀

강 준 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사랑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고귀한 것입니다. 인간은 사랑하고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합니다. 프랑스의 작가이며 시인인 빅토르 위고는 "삶의 최상의 행복은 자신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헨리 나우웬은 기도의 핵심을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기도란 당신을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자녀'라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기도란 그 음성을 내 존재의 중심에서, 내면에서 듣고, 그 음성이 내 전 존재에 울려 퍼지게 하는 것이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헨리 나우웬, 『헨리 나우웬의 공동체』, 두란노, 30-31쪽).

우리는 날마다 세상에서 말하는 소리를 듣고 삽니다. 그것은 "너는 부족하다"라는 소리입니다. "너는 아직 멀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는 율법의 소리와 같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부족하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복음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상품이 아닌 걸작(傑作, masterpiece)으로 만드셨다고 말해줍니다(엡 2:10). 세상은 서로를 비교하게 만들어 교만하거나 또한 비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불후의 걸작품을 상품으로 전락시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릴 때 가장 안전합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엡 3:17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을 때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엡 3:18-19). 우리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과 나눌 때 풍성해집니다. 저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가운데 세 가지 비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Give).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가장 소중한 것을 주게 됩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한 까닭에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아낌없이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막 14:3).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요 3:16상).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롬 8:32). 사랑의 비밀은 주는 데 있습니다. 사랑의 풍성함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두 손을 펴서 사랑을 베푸는 데 있습니다.

주는 것은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밀알 하나가 완전히 자라 밀 이삭이 되면 30-5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한 조각의 감자를 심으면 60개의 감자를 얻는다고 합니다. 사과 씨앗을 심으면 사과나무가 되어 매년 풍성한 사과를 선물해 줍니다. 주는 것은 씨앗을 심는 것 같아 우리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줍니다.

둘째, 사랑은 용서하는 것입니다(Forgive). 사랑은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용서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간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의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눅 23:34).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사 53:6; 마 1:21). 용서받고 용서를 베푸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의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한을 품고 복수하려는 마음은 우리의 행복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용서함으로 자유함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힌 사람들을 잊을 수 있는 길은 그들을 용서할 때 가능합니다. 용서란 과거를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용서란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셋째, 사랑은 상대방의 죄와 허물을 잊어주는 것입니다(Forget).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죄와 허물을 용서하실 뿐 아니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히 8:12).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신 후에는 다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과거의 죄와 우리를 불리하게 만드는 죄 문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도말해 버리셨습니다(골 2:13-14). 인류가 만드는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의 하나는 지우개입니다. 잘못 쓴 것을 지울 수 있는 지우개는 최대의 발명품입니다. 컴퓨터의 기능 가운데 가장 좋은 기능은 "Delete(삭제하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다른 사람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죄를 잊어주는 사랑을 베푸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사랑은 훈련입니다. 저절로 자라는 것은 잡초뿐입니다. 참된 사랑은 정원을 가꾸듯이 날마다 가꾸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풍성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마 3:17)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이웃을 사랑하도록 합시다(롬 5:5).

연재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

기드온동족선교
박상원 목사

다시 말해 순결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가 악인의 피를 몸에 묻히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다.

나중에 나를 제외한 세 명은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에 생을 마감했다. 2007년 여름, 폭풍이는 보위부 요원들의 유인으로 체포되어 2009년 봄 감옥에서 타살되었다. 북한 땅에 남게 된 반짝이는 도적질에서 손을 떼고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파하는 데 힘을 쏟다가 2008년 4월 성경 강해 테이프를 듣다가 발각되어 그해 6월 옥사로 짧은 생을 마감했다. 멍덕이는 2009년 남한에서 지원한 라디오를 함흥 지구에 운반하던 중에 발각되어 도주하다가 안전부들이 발사한 총탄에 맞아 현장에서 죽고 말았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단단히 미쳐야 하고 복음 전파에 정신이 나가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피를 나눈 형제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복음 전파에 헌신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조금도 해이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본향에 돌아가는 날,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에 미쳤노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도자로 맹활약을 펼친 '전용식'

우리 사이에서 '활촉'이라 불리던 전용식도 고락을 함께 나눌 나의 지기 중 한 사람이다. '활촉'이란 별명은 누가 봐도 매섭고 날카로운 인상 때문에 붙여졌다. 하지만 겉보기와 달리 그의 성품은 매우 온유하고 침착하며 매사에 용의주도해서 무슨 일이든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동료였다.

내가 전용식을 처음 알게 된 것은 1998년 겨울이었는데 소위 전도한답시고 도적질을 하고 다니던 때였다. 어느 날 그가 살던 동네를 지나가다 해가 져서 하룻밤 묵고 갈 집을 찾게 되었는데 우연히 친구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는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무작정 하룻밤 신세 좀 지자고 하는데도 흔쾌히 우리를 맞아 들였다. 서슴없이 대문을 열어 주며 맞아들일 때는 고맙기 이를 데 없더니 막상 집 안에 들어서자 전용식은 아무 말 없이 자기 할 일만 했다. 우리 따위는 이미 그의 머릿속에서 지워 버렸는지, 머리를 수그리고 자기 일에 몰두하는데 그 모습이 모골이 송연해질 만큼 섬뜩했다. (계속)

YouTube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기독정보
기독일보 유튜브
"CDTV 미주기독일보"에서 다양한 컨텐츠를 보실 수 있습니다.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 남녀맞춤/명품옷수선
975 S. Vermont Ave. #102, LA, CA 90006

Master Tailor 김병호

앞서가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칼라 전문점
헤어 칼라 $40 부터 시작 $20 부터 시작
매직 스트레이트 $150 부터 시작

*단, 칼라만 하시면 $40 부터시작
프로페셔날- 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칼라는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칼라한 실제 사진들입니다.

WELLA PROFESSIONALS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가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stylist
저희 미용실은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소독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를 사전 예약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금요일 10:00 AM~8:00 PM 토요일 09:00 AM~8:00 PM
Tel: 213-739-1022

구원하시는 성령 하나님

민 종 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1975년 봄날, 사설 독서실에서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체험한 이후로 저의 영혼의 지배적인 성향이 달라졌습니다. 중간고사 시험을 치르고 동숭동 뒷산 성터를 산책할 때, 저는 새로운 세상을 보았습니다.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제가 변화된 것입니다. 인왕산, 북한산, 도봉산이 살아있었습니다. 찬양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자연을 피조물로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영혼의 시각이 지금까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나타난 심령의 변화를 삼위 하나님 중 누구에게 돌릴지 명확히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고 찬송하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성령님이라고 믿습니다.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창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비틀어진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은 제 마음에도 생명의 씨앗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과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한 위격(位格, person)으로 천지창조에 참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하심으로 일하셨으며, 예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며, 우리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주일이 올해는 6월 5일 성령강림주일입니다. 성령님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50일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오셔서 두려움으로 숨어있는 제자들을 충만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께 함께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처럼, 성도들에게 함께하심으로 교회를 강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성도들에게 인격적으로 임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복음을 믿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도록 새 힘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 회개하는 감동을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시며, 불신의 장애물을 돌파하도록 점차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강한 믿음을 세워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다양한 영적인 능력과 초자연적인 힘을 허락하십니다.

오순절 혹은 성령강림 주일은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처음 나타난 것을 기리는 기념일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도록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여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견고하게 하시고, 영적인 씨름에서 이기도록 힘주십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활동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죄를 회개합시다. 성령 안에서 새 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눅 11:13). 이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사명의식

김 한 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얼마 전, 텍사스 우벨디(Uvalde, TX)에 있는 한 초등학교(Robb Elementary School)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으로 학생 19명과 교사 2명이 희생당하는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온 나라가 이 일을 슬퍼하며, 총기 사고에 대한 궁극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들로 정치권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는 이때, 뜨겁다 못해 더 열 받치는 뉴스 하나가 터져 나왔습니다. 총기 난사가 있었던 학교에 경찰이 19명이나 출동해 있었음에도 더 많은 지원을 기다린다는 목적으로 학교 안으로 들어가 아이들을 구출하는 일을 한 시간가량 지체했다는 뉴스였습니다. 자신들이 위험하니 더 많은 지원이 올때까지 기다리라는 경찰국장의 명령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절로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한동안 진정이 되질 않았습니다. 민간인이 사건 현장에 뛰어 들어가려 했다면 무모하게 희생될 수 있으니 말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바로 이런 때를 위하여 훈련받은 자들입니다. 아무리 위험해도 이를 감수하고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들어갔어야 했습니다. 기다리는 절박한 한 시간 사이에 수도 없이 911 구원 요청 전화가 교실에 갇혀 있던 아이들로부터 걸려 왔었지만 경찰은 더 많은 경찰 요원들이 오기를 밖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가만히 있는 경찰들을 보다 못해 국경수비대가 경찰국장의 명령을 무시하고 교실로 잠입해 용의자를 사살함으로 사건이 일단락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뉴스를 보며 흥분해 보긴 정말 오랜 만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경찰의 직무 유기다"라고 뉴스를 보며 저는 분통이 터져 외쳤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이런 일이..." 하고 놀라서 총기 난사범에게 분노했지만, 이 뉴스를 듣고 나서는 용의자보다 경찰에 더 화가 났습니다. 사명을 잊어버린 경찰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본분이 무엇인지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전쟁 중에 자기 죽을까 봐 총을 내려놓고 머리를 처박고 있는 군인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군사재판에 소환될 것입니다. 불침번을 서는 병사가 졸다가 적의 습격을 알리지 못해 큰 인명피해를 보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긴 몰라도 전시 중이라면 사형감일 것입니다. 이처럼 사명감을 잃어버린 군인이나 경찰은 단순히 태만을 넘어 엄청난 피해를 줍니다. 그 피해가 생명처럼 한번 잃어버리면 회복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 무엇으로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우벨디 총격 사건으로 자녀들이 희생된 부모님들의 하염없는 눈물을 보면서 현장에 도착하여 바로 진입하지 않았던 경찰들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이 기회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사명을 고취하는 기회로 삼읍시다.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라'(마 5:14)라고 말씀하시며 성도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우시는 주님의 메시지 앞에 오늘도 가슴 떨며 우리의 등불을 말 아래가 아닌, 등경 위에 두는 순종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생명보험 IRA, Annuity
Lic.#0B33695 Consultation Specialist
Jun Lee (213)361-7771 joyjoe88@yahoo.com

20 YEAR TERM LIFE INSURANCE

Age \ Amount	$300,000		$500,000		$1,000,000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30yr	$17	$20	$25	$30	$45	$54
40yr	$24	$30	$36	$46	$67	$86
50yr	$43	$60	$68	$97	$131	$188
60yr	$116	$169	$189	$278	$373	$550

(20년 고정가격 순수 Term 생명보험 최상급 비흡연자 Rate 월 보험료/나이, 건강상태에 따라 보험료 산출이 다를 수 있음)

AL FLEXIBLE LIFE INSURANCE

Age \ Amount	$100,000		$300,000		$500,000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30yr	$50	$51	$150	$153	$250	$255
40yr	$78	$80	$234	$240	$390	$400
50yr	$127	$132	$381	$396	$635	$660
60yr	$239	$242	$717	$726	$1,195	$1,210

(학자금 조성, 노후 연금, 원금보장 저축성 종신 생명보험)

김동호 목사의 〈자식의 은혜를 아는 부모〉

제대로 사랑하고 바르게 양육하기 위한 자녀교육 특강

김동호 저
규장 | 248쪽

부모의 문제는 사랑하지 않음이 아니라 무지함이다!

제대로 사랑하기 위해선 자녀사랑을 공부해야 한다

규장문화사가 김동호 이사장(사단법인 PPL(People & Peace Link 재단))의 신간 〈자식의 은혜를 아는 부모〉를 출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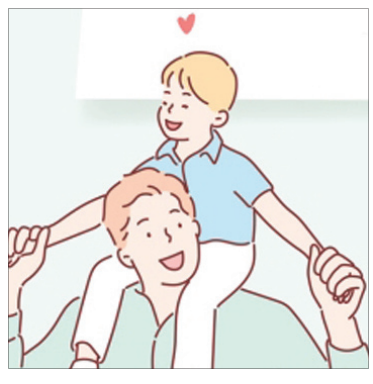
이 책은 2001년 출판된 저자의 저서인 〈자식의 은혜를 아는 부모〉의 개정판으로 목사이자 아버지로 세 아들을 키우며 얻은 저자의 경험과 깨달음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부모가 가져야 할 자세와 자녀교육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배우고 실천하기를 바라고 있다.

저자는 "세상에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아마 없을 것이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부모는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 그만큼 부모는 자식을 사랑한다. 그런데도 자녀들에게 가장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일등이 아마 부모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부모 때문에 행복한 자녀들도 많이 있다. 하지만 뜻밖에 이 세상에는 부모 때문에 고통받는 자녀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그는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하는데도 자녀에게 원치 않는 고통과 불행을 주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지식과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식 없는 사랑이 때때로 생사람을 잡기 때문이다.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말 사랑한다면 공부해야 한다.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배워야 한다. 무지한 사랑은 흔히 무례한 사랑으로 이어지기 쉽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주게 마련이다.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모든 부모들은 자녀교육과 자녀사랑을 공부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많은 자식들이 부모의 은혜를 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의 은혜를 모른다. 내가 내 자식의 은혜를 알아주었더니 자식은 부모의 은혜를 생각해주었다. 부모의 은혜만 강조하며 폭력적으로 효도를 권해서는 안 된다. 그런 방법은 통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미안해할 줄 아는 마음은 자녀교육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자세가 된다. 일단 그런 자세가 되면 교육은 누구나 가능하고 언제나 가능하고 어디서나 가능하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의 실수를 솔직하게 사과할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며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이 정말 원칙에 벗어나고 진리에 벗어나는 것이라면 안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해하고 양보해야 한다. 어른과 부모들이 그와 같은 지엽적인 문제를 과감하게 이



해하고 양보해주면 자녀들과 청년들도 부모와 어른을 이해하고 양보하려 할 것이다"라고 했다.

저자는 이어 "아이들은 자기 아버지가 비겁한 사람이 되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 부끄러워한다. 자식에게 용기 없고 비겁한 아버지로 비쳐지면 교육은 그것으로 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절대 자식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적인 권위를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이라며 "꾀와 요령으로 혹여 자리와 돈을 얻을 수는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중요한 부모의 교육적인 권위는 얻을 수 없다. 그러므로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부모가 되려면 작은 일 하나도 꾀부리지 말고 성실하게 땀흘리며 살아야 한다. 성실함으로 인정받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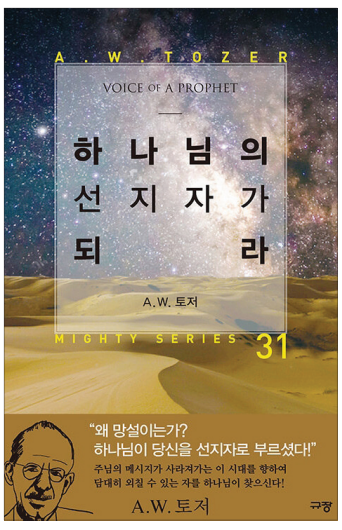
그는 "자녀를 성공적으로 교육하려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사랑하는 마음에 더하여 구체적이고도 완벽한 설계도를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내 자녀를 어떠한 자녀로 키우겠다는 목표와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아이들을 깊이 사랑하는 일이다. 부모의 사랑으로 아이에게는 세상과 사람과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기본적인 신뢰감이 형성된다. 기본적인 신뢰감은 아이가 자율성을 갖도록 돕는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친밀성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것을 목표로 교육해야 한다. 아이들에게 쓸데없는 경쟁심만 심어주어 사람들을 친구로 여기지 않고 모두를 경쟁상대 심지어 적으로 인식하는 살벌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어리석은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끝으로 저자는 "많은 자녀들이 부모들의 무례함 때문에 상처입고 고통받는다. 그 상처와 고통 때문에 자녀들이 잘못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며 "하나님께서 가장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것은 가정이다. 아담을 위해 하와를 그리고 하와를 위해 아담을 창조하심으로써 하나님은 가정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가장 귀한 창조는 에덴이 아니라 가정이다"라고 했다.

최승연 기자

[6월, 작가들의 말말말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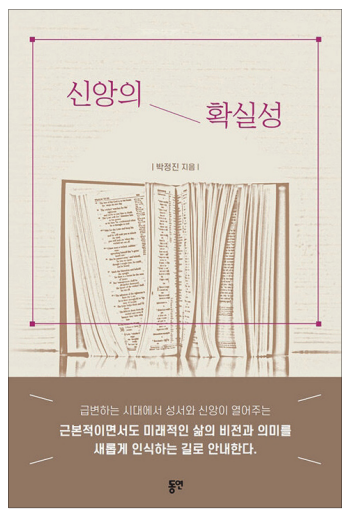
◈ A.W 토저(저자), 이용복(옮긴이) -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라

다시 말하지만, 메시지는 선지자에게서 나오지 않는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원하실 때 선지자를 통해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은 선지자가 메시지의 내용을 결정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심으로써 우리의 원수들을 이기신다. 그분이 우리를 이기시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가장 힘든 준비 과정이다. 그러나 언제나 그분은 당신을 이기심으로써 당신의 원수들을 이기신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분은 자기 힘으로 싸우겠다고 주먹을 꽉 쥐는 사람의 편에 서서 싸우시지 않는다. 축소된 복음은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했다. 축소되고 희석되고 편집된 종교는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해 만들려고 하셨던 종교가 아니다. 동행의 도움을 받아 험한 곳을 통과해야 했던 약골들이 천국을 가득 메우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천국을 가득 메우고 있는 사람들은 병사, 순교자, 꿈꾸는 자, 선지자이다.

◈ 박정진-신앙의 확실성

'신앙의 확실성과 생명력'은 우리 인간의 인식이나 지식의 확실성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의존의식으로부터만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신앙의 주체('우리'가 믿지만)와 그 대상의 역설적 관계(우리가 아니라 그 '대상'이 갖는 '절대적인 의미')는 우리 신앙을 바로 세우는 데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이며,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사건의 의미가 우리를 사로잡을 때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의 문법은 그렇기에 우리 신앙인이 마음에 새겨야 하는 귀한 신앙의 확실성을 위한 근본 명제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런 신앙의 확실성과 생명력에 다가가게 될 때 우리는 바울이 확신했던 신앙적 선언, 즉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는 확신을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 신앙을 더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최승연 기자



NEW
당뇨! 당뇨는 근본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뉴 프로지골드 출시!

正品
100% 정품
Made in U.S.A.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Gold
PRO-Z
Premium formulation

오래 기다리셨던 아연보충성분 프로-지골드 드디어 출시!
아연. 크롬 주성분에 홍화씨유와 달맞이꽃 종자추출물(PGG)이 추가된 PRO-Z Gold

글루콘산 아연 • 크롬 + 홍화씨유 + 달맞이꽃 종자추출물

✔혈당조절! ✔면역기능! ✔세포분열!

1 혈당, 정상적인 면역기능 때문에 고민이라면?
프로-지 골드가 삶의 활력을 찾아드립니다!
프로지 골드의 주성분 아연, 미네랄은 정상적인 면역기능 및 세포분열에도 도움을 줍니다.

2 산화아연이 아닙니다!
체내 흡수율이 높은 글루콘산아연(zine gluconate)이 들어 있습니다.

식후 혈당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프로지 골드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 이론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당뇨 약들은 천연 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 부종, 신장 부종, 간 독성)과 방광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많은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근육세포의 당 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의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39~43 미국 특허 #5,411,748 and #5,997,908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하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인한 인슐린 분비 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카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가지 요인에 인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 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인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이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신 합성 물질 '프로지'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에 킬레이트 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특별 행사 SALE

프로지 3병 구입시
1병 Free
$237 + Tax

213. 434. 1170
3008 Wilshire Blvd #200., LA, CA 90010
www.prozgoldusa.com / prozseller@gmail.com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박욱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마동석 유니버스, 〈범죄도시 2〉 (上)

영화 〈범죄도시 2〉 대박 행진과 범죄수사물의 순기능

범죄 경계심 유발하고 정의 실현 기대감 유발해
성경은 인간 본성이 공의 실현되는 것 기뻐하고
범죄 발생에 괴로움 느낀다는 사실을 잘 가르쳐
인간 내재 죄성 자각·고민, 신앙 필수 예비 조건

범죄자를 응징하는 열혈 형사 마석도(마동석 분)의 일대기, 〈범죄도시 2〉.

◈범죄수사물의 특성: 현실의 상황에 바탕을 둔 정의구현의 서사

〈범죄도시〉 시리즈는 마동석 배우 특유의 캐릭터성을 앞세운 범죄수사물로서 단순한 서사 및 캐릭터 묘사, 그리고 호쾌한 액션 장면을 앞세워 인기를 끈 작품이다.

이 영화는 과거 유사한 방식으로 기록적인 흥행 성적을 거뒀던 〈투캅스〉 시리즈나 〈공공의 적〉 시리즈의 계보를 잇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범죄수사물은 실제 사건 혹은 실존인물이 모티브가 되는 경우가 많다. 현실에서 자행되는 범죄들이 워낙 다양하고 자극적이어서 끊임없는 서사의 원천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범죄수사물은 경찰과 범죄자의 충돌이라는 지극히 단순한 서사 구도를 채택하면서도 그 안에 우리의 눈길을 끄는 무수한 범죄 이야기를 담을 수 있다.

현대적인 범죄수사물의 원조는 경찰보다는 탐정들의 활약에 초점을 맞춘 추리소설이었다. 1841년 에드거 앨런 포가 최초의 추리소설인 〈모르그 가의 살인 사건〉을 집필한 이후, 1940년대까지 추리소설 장르는 프랑스와 영미권에서 대중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당시 범죄수사물의 주인공이 주로 탐정이었던 이유는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들의 수사역량과 전문성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940년대를 지나면서 범죄수사물의 대세는 경찰들의 활약을 묘사하는 데로 초점이 옮겨진다. 이는 소설과 영화의 형식적 특성에 기인한 것이다.

소설이 수사 과정에서 퍼즐 맞추기와 같은 추리 및 머리싸움을 표현하는 데 강점을 보인다면, 영화는 범죄자의 추적과 색출 과정에서 벌어지는 심문의 분위기나 몸싸움의 격렬함 등을 표현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문화예술 양식의 변화로 인해 각광받는 서사의 종류에도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이에 최근의 범죄수사물 대부분은 경찰들의 심문과 조사 방식, 그리고 박진감 넘치는 액션을 묘사하는 데 주력한다.

최근에는 과학적 수사기법의 급격한 발전이라는 요소까지 더해져 수사관 캐릭터에게 집중된 범죄수사물의 트렌드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범죄수사물은 대중의 흥미를 자극하는 동시에 교훈적 기능도 수행한다. 모든 범죄수사물이 단순한 권선징악형 서사를 채택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범죄의 참혹함과 악독함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한편 범죄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들의 활약과 노고를 알리는 데 주안점을 둔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런 이유로, 미국의 미디어 업계에서는 범죄수사물이 독보적인 위상을 지니고 있다. 경찰들이 존경받는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지역 별로 악화된 치안 상태는 범죄수사물에 대한 대중의 높은 관심을 유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범죄 피해에 대한 대중의 두려움과 경각심이 상당하고, 범죄로부터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이들에 대한 관심과 호감도 또한 높기 때문에 범죄수사물이 끊임없이 제작되고 또 인기를 얻는다.

〈범죄도시〉 시리즈가 국내에서 인기를 얻는 이유도 비슷하다. 〈범죄도시〉 시리즈의 인기는 이전에 비해 악화된 국내의 치안 상황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서울 구로구 대림동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외국인 범죄나 동남아 각국에서 벌어지는 한인 대상 범죄는 실제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들 가운데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인식이 〈범죄도시〉 시리즈의 인기를 떠받치는 주된 요소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다.

◈범죄수사물의 기능: 정의구현의 카타르시스와 범죄의 멜랑콜리

캐릭터의 단순성 및 복잡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범죄수사물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선역과 악역 캐릭터 모두 단순한 성격을 지닌 경우이다. 쉽게 말해서 선역은 단순하게 선하고 악역은 단순하게 악한 작품들을 말한다. 이런 부류의 범죄수사물은 당연하게도 선역인 경찰을 부각시키고 그 매력을 드러내는 데 주력한다. 비교적 가볍고 쾌활한 분위기의 수사물이나 경찰 버디무비가 여기에 속한다.

미국에서는 〈48시간〉, 〈비버리 힐스 캅〉, 〈나쁜 녀석들〉 시리즈가 대표적이고, 국내에서는 〈투캅스〉, 〈공공의 적〉, 〈공조〉, 그리고 이번에 개봉된 〈범죄도시〉 시리즈를 예로 들 수 있다. 이 작품들은 모두 강력반 수사관들의 매력적인 캐릭터성을 강조하며 단순명료한 권선징악형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다음으로 선역과 악역 캐릭터가 대단히 복잡한 성격을 지닌 경우이다. 이 경우 다시 두 부류로 작품의 성격이 나뉘는데, 한쪽은 선역인 경찰의 입장을 옹호하며 그 매력과 애로사항을 보여주고, 다른 한쪽은 악역인 범죄자의 삶의 궤적을 보여주며 그 처지를 변호하고 동정심을 표현한다.

전자의 대표적인 예로는 영화 〈블랙 레인〉, 드라마 〈트루 디텍티브〉 시리즈를 들 수 있다. 경찰로서 겪게 되는 수많은 고충과 사생활에 드리운 암운으로 인해 심적인 고통을 감내하고 가까운 이들과의 관계도 악화되지만, 끝내 범죄자를 검거하고 추가적인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의무감에 짓눌려 살아가는 이들의 서사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인다.

이와 달리, 복잡한 성격의 캐릭터를 선보이면서 악역의 입장을 조명하고 동정하는 범죄수사물 또한 존재한다. 드라마 〈덱스터〉, 〈브레이킹 배드〉 같은 작품은 악랄한 범죄자들의 행적과 심리를 조명하는 데 주력한다. 이런 부류의 작품은 범죄자들이 악랄한 범죄를 일으키게 된 과정과 이유,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인간관계를 자세하게 보여줌으로써 그들 나름의 처지와 입장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일견 범죄자를 미화하거나 영웅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작품도 결국에는 교훈적인 기능을 발휘한다. 범죄를 저지르는 데 익숙해진 악당들의 삶은 결국 자신과 주변인들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다.

이처럼 범죄수사물은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선의지와 양심, 그리고 사회를 지탱하는 법적 정의라는 요소들을 부각시키면서 범죄의 결과가 고통과 불행, 절망뿐임을 일깨운다.

그러므로 기독교적 관점으로 볼 때 범죄수사물은 여러 모로 유익한 기능을 발휘한다. 영화 〈범죄도시〉 시리즈와 같은 단순하고 코믹한 작품부터 드라마 〈덱스터〉처럼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의 작품까지, 모두 범죄에 대한 경계심을 유발하고 정의 실현에 대한 기대감을 갖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죄성을 자각하고 이에 대해 고민하는 일은 신앙의 필수 예비조건이다. 성경은 인간의 본성이 공의의 실현에 기뻐하고 범죄의 발생에 괴로움을 느낀다는 사실을 가르친다.

대중문화 영역에서 범죄수사물은 성경이 가르치는 이런 인간 본성을 유비적으로 자각하게 만드는 순기능을 갖는다. 〈계속〉

박욱주 박사(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리치몬드 한인 장로교회 담임목사 청빙

리치몬드 한인장로교회는 버지니아 주 리치몬드 (Richmond)에 위치하고
1967년에 창립하여 54년의 역사를 가진 미국장로교(PCUSA) 소속 교회 입니다.
4대 담임목사님의 15년이 넘는 사역 후 은퇴로 인하여 5대 담임목사를
다음과 같이 청빙합니다.

richmondkpc.com

1. 목회자 청빙 자격 조건
1) 소속 : 미국장로교 (PCUSA)에 소속된 분이거나 가입이 가능한 분
2) 학력 : 정규 신학대학원 M.Div 이상 학위를 받은 분
3) 경력 : 담임목사 또는 부목사 5년 이상 경력자
4) 언어 : 한국어와 영어의 소통이 가능하신 분
5) 신분 : 합법적으로 미국 내에 체류 가능하신 분

2. 제출서류
1) 이력서(PCUSA Form PIF: Personal Information Form) 양식 또는 자필 이력서
2) 최종학력 증명서와 목사 안수 증명서
3) 추천서 2통(목사, 장로 추천서로 추천자의 이름과 연락처)
4) 목회 계획서
5) 신앙고백서와 목회철학
6) 최근 6개월 내 설교영상
7) 본인 및 가족 소개서 (가족 사진 포함)

3. 제출 마감일시
2022년 6월 30일

4. 제출처
우편 : 청빙위원장, 서유석 (Peter Suh)
2700 Stemwell Blvd., Richmond, VA 23236
Email : richsuh@aol.com
전화: (804) 852-0541
* 제출 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청빙을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리치몬드 한인장로교회 청빙 위원회

성가대 및 찬양팀 반주자로 섬기실 분을 모십니다.

1. 지원자격
1) 성가대 및 예배 키보드 반주 동시에 가능하신 분
(코드연주 및 Key-Up down 자유로우신 분)
2) 찬양팀 경험자 우대

2. 사역내용
1) 주일 1부(8시 예배), 2부(10시 45분 예배) 성가대 반주 및 찬양팀 반주
2) 수요예배(추후 예정)

3. 필요한 서류
1) 이력서
2) 자기소개서

4. 보내실 곳
토랜스 참사랑교회(1432 Engracia Ave. Torrance, CA90501)
이메일 : medialee68@gmail.com
홈페이지 : thechamsarang.org
문 의 : 562)338-9209

토랜스 참사랑교회

공식 홈페이지 www.gideonbrothers.org

제3차 8.15 광복 77주년 기념

글로벌복음통일전문 선교컨퍼런스 [HOUSTON 2022]

Global Expert Network Reunification Korea Mission Conference [HOUSTON 2022]

"오직, 복음통일만이 통일의 답입니다"(행1:6~8)

Only, the answer is Gospel Reunification

- 일 시 : 2022년 8월 15일(월) ~ 19일(금)
- 장 소 : 휴스턴한빛장로교회(3929 Colgate Street Houston TX 77087)
- 문 의 : 주최측: 425-775-7477, 주관교회: (713) 643-4348
- 대 상 : 한어/영어권 성도들과 청소년 2세 모두
- 참가방법 : 위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선택강의 선착순으로)

(대회장)
임현수 목사
TMTC

(연합)
정성진 목사
거룩한빛광성교회원로

(연합)
고명진 목사
수원중앙침례교회담임

(통일연연합기도)
이용희 교수
에스더기도운동

(분단원인/회개각성)
오창희 목사
흰돌교회담임

(탈북구제사역)
천기원 목사
두리하나

(북한농업실무)
김학송 선교사
전)평양과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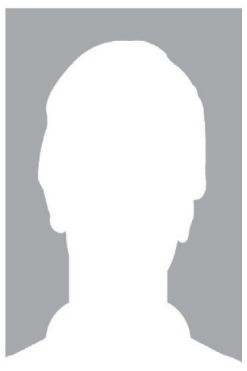
(통일법)
송인호 교수
한동대학교

(전문인사역)
정규재 목사
강일교회/연변과기대

(북한현실/문화)
강동완 교수
동아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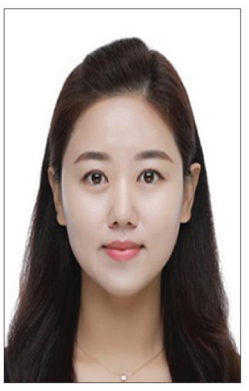
(북한지하교회역사)
강석진 목사
극동방송

(주관교회)
정영락 목사
한빛장로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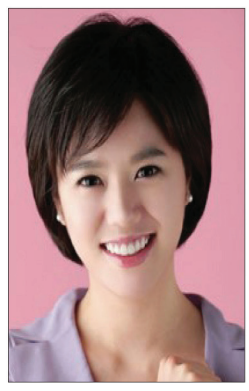


(통일전략/북한통치이해)
김요한 목사
유니티미션

(통일영상의 필요)
윤학렬 감독
'철가방우수씨'



(북에서 남으로)
김연영 자매
2015년 탈북



(청년비전,스피치/진행)
황현주 아나운서
사회복지전문연구원

(통일청년세대)
조평세 박사
'바로서다' 이사

(사무총장)
박상원 목사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

이외에 탈북청년들의 간증들이 있을 예정이며, 강의는 covid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주최: Global Expert Network Reunification Korea Mission of Diaspora

주관: 기드온 동작선교 /한빛장로교회 협력: 휴스턴교협 협찬 : 미주기독일보 YouTube LIVESTREAM